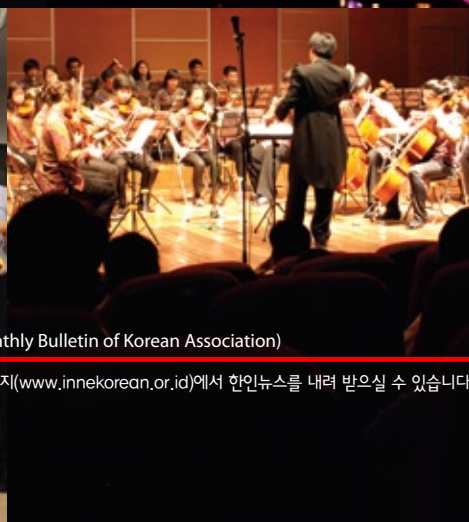




since 1996 

# 한인뉴스

Vol. 174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2010 차선 송년의 밤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송년 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6:30  
Hotel Mulia Senayan, Grand Ballroom

참가비 50만 루피아/1인

입장권판매처

한인회, 무궁화 유통(전매장), 뉴서울슈퍼, K-마트

입장권 판매일시

11월 12일 ~ 11월 30일(선착순 1000명)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Tel: 021)521 2515, 527 3539

Fax: 021)521 2486, 5296 0586



사회자 정성한  
(전 켈트삼총사)



특별가수 김연숙  
(그날, 초연)

1부: 공식행사  
2부: 연회 및 공연



푸짐한 경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LED-TV, 피아노, 한국왕복티켓,  
고급핸드폰, 디지털카메라...

후원사

코린도그룹,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 재인니한국신발협회, 재인니땅그랑한인회,  
민주평통인니지회, 키에코그룹, Hanindo Express, KMK Global Sports,  
Dong Jung, Starcamtex, Tri Karya Alam, Doosan Cipta Busana Jaya,  
ZIMMOAH, Sung Bo Jaya, Royal Sumatra, 동서증권, Inhwa Indonesia,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삼성, LG, 삼익악기, 일요신문, OKTN, K-TV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H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얄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항공, KLM 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야

##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추가	항공 + 2박		1박추가
		12/1~12/24 2/5~2/28	12/25~ 2/4		12/1~12/24 2/5~2/28	12/25~ 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08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1,24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1,25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029,000	140,000	1,289,000	1,31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029,000	142,000	1,299,000	1,32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Kamuella Vilas Sminyak The Ahimsa
룸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set	Java Banana

##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PT. DONG JUNG INDONESIA POLYBAG MANUFACTURER  
ISO 9001 : 2000 ISO 14001 : 2000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 쓰나미 화산 이재민에게 한인사회의 온정을 보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 쓰나미, 화산 연쇄 폭발 등. 연이은 자연 재해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늘고 있습니다. 중부자바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 재난경보를 내린 상태이며 수색, 구조작업은 악천후와 추가 재난 예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피해 한인기업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희생자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용기를 주고 빠른 재해복구에 도움이 되고자 재해의연금을 다음과 같이 모금하고자 하오니 인도적인 지원과 구호협력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사랑의 성금 모금함 ◆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계좌번호(RP): DDA-913-000538

주소: Jakarta Stock Exchange Bldg Lt.16, Jl. Jend. Sudirman Kav. 52- 53

외환은행: Bank KEB Indonesia

계좌번호(RP): 220 200 5949

주소: GKBI Lt.20, Jl. Sudirman Kav.28 Jakarta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RP): 001 00 11 00204 9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Kuningan Timur Setiabus, Jakarta Selatan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모금기한: 2010년 11월 18일 ~ 2010년 12월 15일 까지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족자에서 날아온 편지



족자 머리뼈 화산 폭발로 인해 교민들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족자한인회의 회장으로 있는 조현보 회장이 화산폭발로 피해를 입은 박병엽 씨의 농장을 방문하고 사진과 함께 한통의 편지를 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족자인근에 있는 문떠란지역(보로부두르 사원인근지역)에서 중요사업을하는 박 병엽 사장의 농장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가는 동안 잘란 마글랑은 온통 회색과 검은 색의 가루가 휘 날리며 시야를 가리고 가로수나 인근에 보이는 굵은 나무들이 화산재의 무게로 인하여 가지가 꺾여있고 높이 걸려 있는 야자 나무잎은 꺾임으로 인하여 밑으로 축 늘어져 풀이죽어 있습니다. 대나무도 중간 중간이 통째로 꺾여 넘어가고 쓰러져 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니 박 병엽사장이 맑은 얼굴로 반갑게 맞이 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도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리고 아립니다. 농장 규모는 20헥타르 정도이며 고추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교배하여 씨앗을 생산합니다.

10헥타르는 노지재배를 하고 10헥타르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온실재배를 하고있습니다.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 고추와 토마토는 화산재로 튀김가루를 입혀놓은 듯 합니다. 수확기에 있는 고추와 토마토가 썩기 시작합니다.

비닐하우스는 60%정도가 반파 되었습니다. 화산재를 계속 털어 내어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 한다 합니다. 평상시는 300여명의 출근하여 일을 하는데 폭발 후에는 출근하는 직원이 30여명 선이라 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이유는 화산폭발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도 있지만 혹시 모를 강한 폭발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하고 집에서 대기 하는 직원들이 70%선이라 합니다. 농장인근의 벼도 피곤하나 봅니다, 누워서 쿨쿨자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어렵잡기는 실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2101년 11월 족자에서 조현보 배상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 만학도 이재원 씨



〈인터뷰: 김영민 편집위원〉

원양어선만 20년을 탄 전직 베테랑 선장 출신 이재원 씨. 선장 직을 그만두고 한국에 머물면서 인도네시아에 원양어선 선원을 송출하는 직업으로 전향했다. 그런 후 마음속에 인도네시아아가 들기 시작할 즈음인 2001년 불현듯 짐을 싸 인도네시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도네시아라는 곳, 외국인을 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착한 심성과는 달리 타국민의 이민을 받아 주지 않는 나라, 그래서 타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땅을 밟게 되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오명의 국가로 불리기도 하는 나라.

이재원씨는 인니에 도착 후 한국의 업무를 이어 원양어선에 선원을 송출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며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함께 익힐 수 있으니 그에게 인도네시아는 일석이조의 나라였다.

그 후 환갑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 이 씨는 작은 용기를 내어 보고르 농과대학에서 공무원이나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특별과정인 주말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 졸업을 욕심내기 보단 오랫동안 버려뒀던 영어 공부나 하자는 심정이었다. 특히 원양어선 성원 송출회사를 운영

하면서 한계를 실감했던 직원들과의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말을 배워보고 싶은 욕구도 한 몫 했다.

이재원씨가 만학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결정적 이유는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원의 친구가 농담처럼 건넨 말 때문이었다. 친구는 그가 다니는 보고르 농대의 안내서를 보이며 “한번 읽어보고 교수 추천 받아서 공부하면 된다. 공부 시작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했고 그게 다였다. 이 씨는 곧바로 그렇게 해 보기로 결정했다.

학업이 시작되면서 낭만적인 학습 동기는 점점 사라져 가고 새로운 배움의 시간은 그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모르는 단어들로 서로 얽혀진 전공서적들을 대하면서 높은 언어의 벽을 실감했고 수업 시간 종일 사전을 수십 수백 번도 더 뒤적거려야만 조금씩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 낼 수가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교수로부터 ‘사전 찾는 인간’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하지만 대학원 2년 동안 밖에서의 외유를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학습열을 불태웠다. 다행히 자신의 업종 및 전공과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더욱 집중할 수



## 영원과 하루 - 족자

강희중

가 있었고 결국 졸업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얻어냈다.

그는 졸업 논문으로 세란 지역의 들막(Bagan) 물때에 따른 어획량에 대한 고찰 『Pengarhan Periode Hari Bulan Terhadap Hasil Tangkapan dan Tingkat Pendapatan Nelayan Tancap di Kabupaten Cerang』의 내용이었다. 한평생을 바다를 벗 삼아 살아온 그에게 논문의 주제는 친근한 소재였다.

원양어선 선장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명백한 진리들, 보름달, 그믐달, 반달 때 어획량의 변화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한 물 때 큰 수확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좋은 때를 놓쳤다는 의미로 ‘한 물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나. 한국 농수산 식품부 원양산업협회 명예수산관이기도 한 그는 직업정신이 발동, 세랑 지역의 어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물때에 따른 어획량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했고 ‘어부들에겐 그러한 개념이 없다’로 결론 지었다.

이 씨는 한국의 어획 방법을 적극 적용해서 어구 12개를 바다에 설치해 실험 했다. 결과적으로 어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조수 격차가 적어 바다가 조용하기 때문에 반달(조금)때 어획량이 가장 많았다. 한국과 같은 결과이다. 논문 내용의 증빙자료가 되었고 교수들의 만장일치로 가쁜이 시험을 통과 할 수 있었다.

30년을 쉬고 새로 시작한 학업. 내년 달력에 한국의 음력달을 표시해 실험 지역 근처 주민들에게 배포해 해볼까 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피어날 만큼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

만학의 길을 걷게 되어 인생에 얻음을 많이 느끼는 이 씨. 그는 조금 시간이 된다면 공도 치고 여유를 가져도 좋지만 특히 주재원의 경우엔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공부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인생의 길이 아니겠냐며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족자는 영원을 믿었던 도시  
용암이 쏟아낸 자산을  
그리고,  
새기고,  
끼워 맞춰  
이름답고 숭고하게  
세계의 하루를 빚어 놓은  
영원 속의 하루를 알았던 도시

족자에서 인류는 한마음이다  
불교도, 힌두교도, 카톨릭도, 이슬람도  
무너진 사원 돌탑에 떠다니는 무수한 영혼들  
찬란한 유적지에서 모두 함께 한다.

족자는 왕족의 도시  
화려했던 그 모습이 꿈에 보인다  
내가 왕이 되어 바턱 입고  
가물란 선율에 녹아들고  
무희들과 춤을 즐기며 영원을 살고 간다

족자는 산 역사의 도시  
사원 보로부두르에 올라  
일출을 기다린다  
어둠을 벗어나면서, 족자는  
영원을 가슴에 새겨주는 도시  
하루가 영원임을 알려주는 도시



## 수상소감

수년 전 반동을 꿈꿔 누웠던 문화탐방은 새로움에 깊이 물들었고, 알찬 추억을 담고 있었다. 최근에 또다시 참가했던 족자 탐방에서는 지나간 세월의 흔적과 하나 된 인류를 보았고, 뽕짝 차밭에서는 신선의 길을 걸었다. 이 모두 내게는 숭고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차안에서의 시낭송은 한동안 멍멍한 가슴을 활짝 열게 해주고 흔탁했던 감성을 씻어주었나 보다. 그동안 손끝으로만 쓰고, 그리다가, 마음으로 써 보려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번 계기는 가슴을 여는 열정으로의 안내일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감성을 넓히도록 푹푹 젖어 들어보겠다.

# 프리카 가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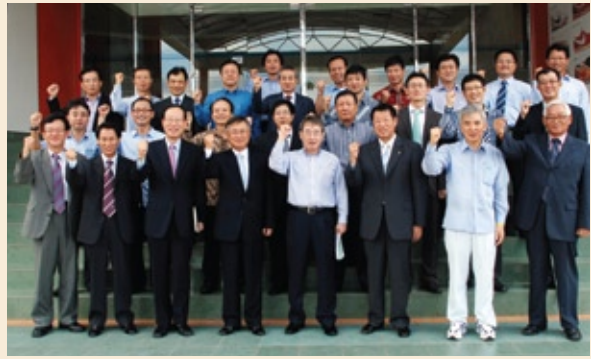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인사회 구석 구석에서 씩 새 없이 일해  
났던 우리들의 이야기.

한 해의 끝을 잘 맺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단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년  
간



## 대사관-땅그랑 교민 업체, 협력 다짐

대사관은 1월 19일 땅그랑 지역 교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교민기업들과 공관과의 유대관계 증진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나누고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다.

PT. Pratama Abadi Industri(회장 서영률)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20여명의 땅그랑 교민기업대표들과 김호영 대사, 오송 공사, 하형소 노무관, 이득수 관세관 등 대사관 직원들이 참여했다.

신발협회 이경선 부회장은 대사관과의 간담회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좀더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길 바랐고 부가세 환급의 어려움, 전력사용의 문제, 땅그랑 한인회 발족에 관한 기업대표들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호영 대사는 “올해는 전망이 밝다. 좋은 여건에서 분발해 더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사안별로 대사관 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재 인니 『한인예총』 제2기 출범

재 인니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는 1월 7일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2008년 2월 창립을 한 『한인예총』은 2009년 봄 신상석 초대회장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인해 소속 단체별로 활동해 왔다.

이번 제2기 회장단 출범을 통해 일신한 면모로 새롭게 전진할 것을 다짐한 『한인예총』은, 특별히 2010년 총회에서 13개 단체 대표와 활동이 활발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는 외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연합체운영이 주목적임을 밝혔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손인식씨는 “우선 각양의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업인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재 인니 『한인예총』의 존재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정서와 품격의 바로 잣대가 되지 않겠는가?”고 반문하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장윤정 콘서트, 성황리 열려

2월 20일 자카르타 시에 위치한 공연장인 JTEC엔 현재 인도네시아에 한류와 한글 바람이 불고 있는 시기에 맞춰 ‘한글사랑’을 주제로 한 <한글사랑 장윤정 자카르타 콘서트>가 개최되어 교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K-TV(대표 박영수), DNA(대표 고희석), BEAN R&A 가 주최한 금번 콘서트는 1500여명이라는 예상외의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손을 잡고 나왔다든 며느리, ‘어려운 콘서트 환경임을 감안하고 개뢰를 강행한 주최측의 성공과 계속될 한국 가수들의 인도네시아 콘서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라는 애국심 가득한 교민들의 성원으로 성공리에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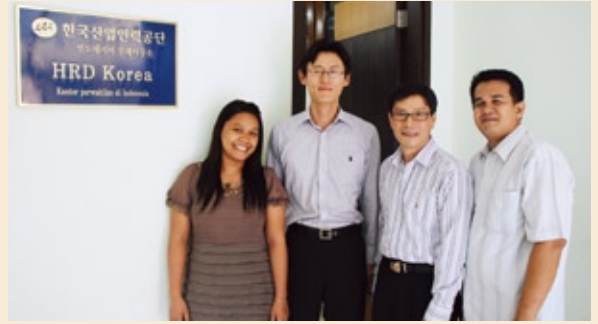


## 찌뜨라라야 “무지개 공부방” 개소

지난 2월 22일 우리은행, 재인니신발협회가 주축이 되어 찌뜨라라야 지역 단지내의 다문화 가정 세대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무지개 공부방’을 개소하고 그동안 찌뜨라라야에서 선교일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왔던 고재천 선교사 부부는 교민 기업과 단체의 후원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도 하게 되었다.

우리은행 이민재 행장은 찌뜨라라야 지역내의 일부 다문화 가정 한인 2세들의 생활 환경을 보고 놀랐으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면서 이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베풀고 싶어 공부방 개설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2층 루프를 임대한 공부방은 학습실과 도서관, 컴퓨터 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모임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산업인력관리공단, 구인·구직 지원 발 벗고 나서

봉제 및 신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원 구인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한국의 우수한 인력을 직접 소개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한국인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교민 기업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인도네시아 지사(지사장 진해강)에 연락하면 인력소개 및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or.kr)에 가입해 인니 취직을 희망하는 한국인 구직자들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다.

진해강 지사장은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인기업이 많고 한국인 직원수요가 높아 정부가 직접 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구인으로 해결을 위한 한국 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박노웅 명창, 판소리 공연 성황

인니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예총, 회장 손인식) 주최로 열리는 명창 박노웅 선생과 교수 임민수 선생 초청 판소리 자선 공연이 3월 9일 200여 명의 교민들이 자리한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대사관, 한인회, 월드옥타, KMK, 부인회, KOWIN 등 많은 교민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된 금번 판소리 공연은 PT. Serim Indonesia(3월 10일), 반둥 BIS(11일), 족자(13일), 자카르타 연합교회(15일)의 자선공연을 통해 총 63,468,000 루피아와 400 달러를 모금했다.

4  
월



### 재인니한인회, 대대적 조직 개편

한인회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한인사회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되었던 ‘한인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로드맵 구성의 결과이다.

이번 한인회 조직은 외향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한인상공회의소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장 큰 변화다. 이민 사회가 아닌 상공인 중심으로 이뤄진 이곳 한인사회에서 한인상공인의 중심체인 한인상공회의소의 제 역할을 위한 현실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되어왔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이전 부회장 3인 및 소수의 이사진에서 부회장단 13인 및 이사진의 대폭 강화를 통해 인니 한인사회 특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2일 새롭게 위촉된 회장단 모임에서 승은호 회장은 “현재 한인회는 규모가 커졌고 안정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간 서로들 바빠 참여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새롭게 시작된 한인회인 만큼 직접 참여와 열정을 보여줘 우리와 타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는 한인회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전했다.



### 땅그랑한인회 창립

5천여 교민들의 삶의 터전인 땅그랑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재인도네시아 땅그랑한인회가 4월 16일 창립, 땅그랑 지역 교민들과 각 지역 한인회, 대사관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임페리얼 골프장에서 성대한 창립기념식 및 교민의 밤을 개최했다.

땅그랑한인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이세호 회장은 교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지 동거부부 미 결혼 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첫 사업으로 땅그랑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5  
월



### 한인상공회의소, 발전로드맵 발표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상공인 중심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5월 27일(목)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김남규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관장, 한인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KOCHAM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KOCHAM은 ▲월1회 정례 조찬간담회 ▲한인상공인 교류행사 ▲한인기업디렉터리 발간 ▲대정부 간담회 분기별 개최 ▲대사관, KOTRA와 협력 ▲재인니 타국상공회의소와 협력체제 구축 ▲KOCHAM 인력확충 ▲유명인사초청 강연 등에 대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제화시대에 맞춰 대외적으로는 상공회의소 명칭을 ‘KOCHAM’으로 통일 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KOCHAM은 대사관 및 KOTRA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역투자장벽보고서 작성 ▲노동법, 투자법 책자 공동 발간 등을 시작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 한인영혼 위령탑, 수라바야에 건립

5월 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에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외최초 위령탑이 건립됐다. 일본지배로 피해를 입은 양국이 슬픈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관계증진을 위해 2,800 제곱미터 대지에 새운 ‘한-인니 평화공원’과 ‘평화 기원 탑’은 한 국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했고 수라바야 시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1940년대 일어났던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에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포로감시원으로 생활했던 한민족 2,237명이 이곳에서 희생됐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압본에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폭격에 맞아 숨졌다. 또 일부는 전쟁이 끝난 뒤 현지주민의 오해로 인해 처벌받기도 했다.



## 월드컵 원정 첫 16강 기원 응원전 교민사회 곳곳서 펼쳐져

6월 월드컵 대표팀의 원정 첫 16강 진출 기원을 위한 뜨거운 응원전이 한인사회 곳곳에서 펼쳐졌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를 비롯한 지역한인회 등에서는 수백 여명이 모일 수 있는 응원전을 기획했고 각 식당들도 손님들의 월드컵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는 등 월드컵 기간 내내 분주했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첫 원정 16강의 쾌거를 달성해 전 교민들의 전폭적인 응원에 화답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JKS에서 주최한 대형 응원전에는 적게는 200여명 많게는 500여명의 교민들이 운집해 교민들의 열정을 보여줬고 한바탕의 사물 장단에 맞춰 대~한 민국을 외쳤다. 땅그랑 한인회에서 주최해 땅그랑 교민교회에 모인 지역 교민들도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 박금철씨 대통령표창 수상

박금철 씨(PT. Sims Jaya Kalim : KIDECO계열사)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전수식은 어제 지난 6월 9일 오전 한국대사관 접견실에서 거행되었다.

박금철 씨는 광구개발 전 폐석도급을 담당하는 기장으로 13년간 인도네시아 오지인 깔리마탄 파시르 광산에 근무하면서 평소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한 장비의 가동시간 극대화 및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또한 인니 근로자들과의 화합 및 애사심 고취,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 유통업체-식당간 소주 분쟁 비화

6월과 7월 교민 소주수입업체들이 현지 로펌을 선임해 불법 소주유통 금지에 관한 '권고요청문'을 교민 식당들에 발송하면서 유통업체와 식당 양측간의 감정싸움으로 옮겨갔다. 권고요청문 발송은 2009년 소주밀수 적발사건으로 촉발된 밀수소주 근절을 위한 양측의 합의가 파기되고 다시 불법소주가 유통시장의 절반을 넘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하지만 식당측은 '소주공급 잘 되면 왜 밀수를 쓰겠냐'며 통관지연을 방조해 정품소주 품귀현상을 유발시킨 유통업체를 질타했다.

양측의 갑론을박에 대해 교민들도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 로펌까지 내세운 유통업체의 조치에 손을 들어주는 측과 교민들간의 분쟁에 현지로펌을 내세운 것은 교민사회가 점점 삭막해 질수 있다는 여론이 맞면서 교민사회에도 갑론을박이 연출됐다. 한 교민은 밀수근절을 위해 밀수 소주에 대해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인니한인회 이사회 총회 개최

7월 21일 한인회 이사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승은호 회장은 "한인회, 상공회의소가 교민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의 계기를 만들고 대기업 등이 인니에 속속히 진출하고 있는 만큼 한인회와 협조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기업 수석부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인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전하고 한인회 사무국 강화, 홈페이지 보강, 한인뉴스 재정 확보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민서비스 강화가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임을 밝혔다.



### 교민들 한마음으로 광복 기쁨 나눠

제인도네시아한인회는 8월 15일 1천여 교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65주년 광복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할림라마에서의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JKS 교정 곳곳에서 열린 체육대회와 경축식, 경축공연,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으로 이어졌다.

승은호 회장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는 평화통일이다” 며 역설했고 한국에서 초청된 ‘한소리회’가 흥겨운 공연으로 경축식을 빛냈다.

한편 땅그랑에 거주하는 이상득씨는 경축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성공시켜 현대자동차인 H-1 을 경품으로 받아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 U.I 한국학과 첫 졸업생 배출

2006년 9월 인도네시아대학(U.I)에 첫 정규 학사과정 한국학과가 설립된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8월 26일 UI 학사과정 졸업식에서 4년 전 총 입학생 44명중 26명이 학사모를 썼고 김호영 대사 및 한인회가 참석해 졸업식을 축하했다.

졸업생들의 절반은 대한항공, LG, 삼성, K-TV, 코이카 등 현지진출 한국업체 및 단체들에 취직을 했고 두 명의 학생들은 아직 인니에 대학원 과정이 없는 관계로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을 밟게 된다.

한 졸업생은 한국학과 최초의 학사과정 졸업생이 되어 기쁘다며 아직 부족한 한국학 실력을 연마하고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고 밝혔고 적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전공한 나라인 한국에 방문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다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 서만수 목사 기념관 개관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는 9월 27일 고 서만수 목사의 소천 1주년을 맞이하여 고인의 40여 년 파란만장했던 개인사와 교육철학, 신앙을 담아낸 ‘서만수 목사 기념관’을 개관했다.

연합교회 내 교육관에 자리잡게 된 기념관은 서 목사의 소탈했던 심성을 말하듯 15평 남짓 작고 아담하게 꾸며졌지만 초대 한인교회의 인니 개척사를 넘어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증거들로 채워졌다.

고 서만수 목사는 1939년 평양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문학을 전공했으나 70년 봄 목사안수를 받고 이듬해 인니 토라 자족 선교와 오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부인 정소라 선교사와 함께 78년 오지론락 개척에 착수해 지난해 9월 16일 소천 직전까지 약 400여 현지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고 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UKIM)설립하는 종교와 교육에 끊임 없는 열정을 쏟았다. 92년도엔 세계인명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 김문환 논설위원의 인니현대사 강의 열려

인도네시아 문화연구회는 지난 7월 부터 매달 김문환 한인 뉴스 논설위원을 초청해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환 논설위원은 일제하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의 역사에서 부터 인니 독립의 과정 및 각 대통령 시기의 국직국직한 역사를 설명했고 현재 한인사회가 인니 최대의 외국인 사회로 부상되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친한,지한파의 숨은 이야기 등에 대해서도 흥미있게 풀어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인니-한국 주간, 양국 다층미래협력 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화합, 협력 및 긍정적 미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2010 인도네시아-한국 주간 행사'가 10월 11일부터 7일간 자카르타 도심 곳곳에서 개최되어 지난 2006년 양국 정상간 체결한 '한-인니 전략적 동반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양국간 다층적인 교류의 큰 물꼬가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와 11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금번 행사는 양국간 긍정적 미래 관계를 상징하는 'Flying into the Future'의 모토로 쌍방향의 문화행사, 경제협력, 국제교류의 큰 테두리 안에 경제, 문화,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한 단계 진보한 행사들로 알차게 꾸며져 양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인상을 남겼다.



## K-TV 특집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KBS 서울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

해외한국어방송사 대상 유일한 국제프로그램 시상 축제인 'KBS 서울프라이즈'에서 K-TV(사장 박영수)가 우리 한인사회의 이야기를 담은 4부작 다큐멘터리 <오랑꼬레아의 아리랑>를 출품해 TV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오랑꼬레아의 아리랑은 1부-한인역사기행, 2부-인도네시아 드림, 3부-인도네시아속의 작은 한국(가제), 4부 남겨진 가족들로 구성되어, 1920년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내디딘 한인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현재 한인사회까지의 역사, 경제, 문화, 과제와 방향 등 네 부분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 교민사회 모의 재외국민선거 실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대비한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재인니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지난 11월 14일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은 투표율은 저조했으나 둘째날엔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유권자 181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고 이는 모의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한 26개 국 중 스페인과 레바논 교민사회에서 나온 투표율의 뒤를 잇는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서 인니 교민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을 볼 수 있었다.

재외국민은 오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 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내 거주 유권자들처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색동회, 현지물서 이재민 돕기 연주회 열어

색소폰동호는 수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온 족자 머라빠화산과 먼파와이 지진·쓰나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를 개최했다.

색동회는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남부자카르타의 유명물인 뽀독인다물에서 자선 모금함을 준비하고 10여년간 갈고닦은 색소폰 실력을 뽐냈다.

이날 이일하, 강희중, 배종문, 이상일, 김주철, 이강용, 임채실, 최병우 씨 등 8명은 화려한 팝송, 우리 노래, 인도네시아곡 등을 혼신을 다해 연주했다.



# 인도네시아 수도 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넘쳐나는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비만 오면 물이 차는 도로와 건물, 뿌연 하늘과 메케한 공기, 도로나 공원을 넓히려 해도 더 이상 빈틈이 없는 땅, 지반침하로 기울고 있는 시내 중심의 고층빌딩들……

인도네시아가 만성적인 도시문제로 폭발하기 직전인 자카르타를 개선해서 계속 수도로 유지할 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지 고민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661km<sup>2</sup> 면적에 9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낮 시간에는 위성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1,200만 명 이상이 북적거리고, 사람 수에 맞는 총 1,130만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비좁은 도로를 운행한다.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경우 605km<sup>2</sup> 면적에 1,046만 명이 거주해 오히려 면적이 다소 넓은 자카르타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지만 도로, 전력, 상수도, 교통시스템 등 인프라가 열악한 자카르타는 서울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

환경단체와 도시문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속도로 교통문제가 악화되면 2014년에는 자카르타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자카르타 차량 속도 5년 후 시속 8 km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교통사회(MTI)는 자카르타의 평균 차량주행속도가 연간 시속 1km씩 감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차량들이 시속 10~15km로 운행하지만 오는 2015년에는 5~10km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행 빠리게잇 MTI 회장은 “총체적인 교통체증을 해소

하려면 대중교통의 개선과 확충이 시급하다”며 “당국이 자가용과 오토바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 버스웨이, 모노레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연계시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7년 동안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3배로 늘어 842만대 그리고 자동차는 288만대가 됐지만 자카르타에는 아직도 지하철이 없다.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지하철이 없는 도시로는 가장 크다.

MTI 추산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시간과 연료 손실이 연간 14억 달러 이상 된다.

일부에서는 자카르타의 기반시설들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에 건설돼 100년도 더 된 것이어서 수년 내에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차라리 수도를 옮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 자카르타는 ‘침몰 중’

해수면보다 낮은 땅에 세워진 자카르타의 또 다른 문제는 지반침하다.

마구잡이 식 지하철 개발, 고층건물 난립, 녹지 감소 등으로 지반이 매년 12cm씩 가라앉고 있는 한편, 지구온난화로 해수면도 연간 0.57cm 상승해 오는 2050년에는 국제항공이 있는 판중ברי옥을 비롯한 자카르타 북부와 서부지역의 4분의 1이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환경학 교수 피르다우스알리는 “1984년에 자카르타의 녹지가 전체 면적의 28.8%였으



나 2007년에 6.2%로 감소했다”며 “지하수 사용량도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돌아 지반침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동공대 지질연구소는 최근 수년간 만조 때 자카르타 해안지역 침수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방조제를 건설하고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집수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 초대 대통령 때부터 논의된 천도 문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수도를 횡으로 넓게 퍼져있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중심인 깔리만판 섬으로 옮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후임자인 수하르토 대통령도 장기 집권 끝에 1998년 민주화 시위로 축출되기 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종골(Jonggol) 천도 안을 추진했다.

최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자카르타가 더 이상 수도로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며 새 수도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하는 전문가 팀을 꾸리도록 했다.

## 천도 문제에는 언제나 찬반 양론이 뒤따른다

지난 11월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서 열린 도시 계획에 관한 세미나에서 지역대표회의(DPD) 루드 이다 자카르타 의장은 인도네시아 인구 2억3천만 명의 60%가 자바섬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수도를 자바섬 밖으로 옮기는 것이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카르타로 몰리지 않게 다른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루드 의장은 2가지 방안과 같이 수도를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대 상지에 인프라를 다시 건설하고 공무원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비전 2033팀’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학자 아드리노프 차니아고는 접근성, 편안함 그리고 환경 등에서 깔리만판섬이 수도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에밀 살림 의장은 수도 이전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수도 이전 비용으로 자카르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에밀 의장은 “자카르타에는 이미 관공서와 전력망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왜 새로운 곳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번거로움을 자청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교통망, 교육, 산업, 보건, 문화 등을 위성도시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새로 수도를 건설해도 자카르타는 계속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경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입장에 선 한 전문가는 천도는 빈곤 문제 같은 더 급한 문제에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1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는 수도 이전 계획은 언제나 흐지부지 돼버렸고, 이번에도 천도 검토는 비슷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

# 격, 있으신가요?

세상이 하수상해서 TV에서 눈을 땀 수가 없습니다. 난데 없는 강한 편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잃을 것 없는 사람이 꼬장을 부리면 더 무섭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하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몸을 사리게 되는 법이지요. 제가 아는 대 선배님의 남편이 선배에게 그랬답니다.

‘너희 나라는 왜 만 날 저 모양이나?’

사실 그 대 선배님은 함경북도 출신이시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났으니 그곳이 나라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제 선배님도 만만치 않은 지라. 한마디 던졌답니다.

‘그런 너희네 나라는 가진 게 많아서 썩었냐?’

남편 되시는 분은 충남출신이거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어찌 눈빛에서부터 독기가 빠져 보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그분들은, 서로 절대 안했다는 건 왜 그리 많은지.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문에 너희 나라 우리나라 하며 공방전을 한 셈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인데 참, 왜 그랬을까요? 한방 질러주고 싶은데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 많은 듯해서 마음이 착잡해 집니다.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덤벼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중국의 위상만 높아지는 듯해서 영 기분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전쟁을 겪고 산 세대는 아니지만 주변의 학습효과로 인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서울에 사는 동생이 뒤숭숭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는 저로서는 전해지는 감을 100%는 느낄 없어서 ‘다 잘되겠지. 지들이 무슨 일 저지르겠어? 그거 한방 질러 보는 거지’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탈리아 인과 결혼한 지인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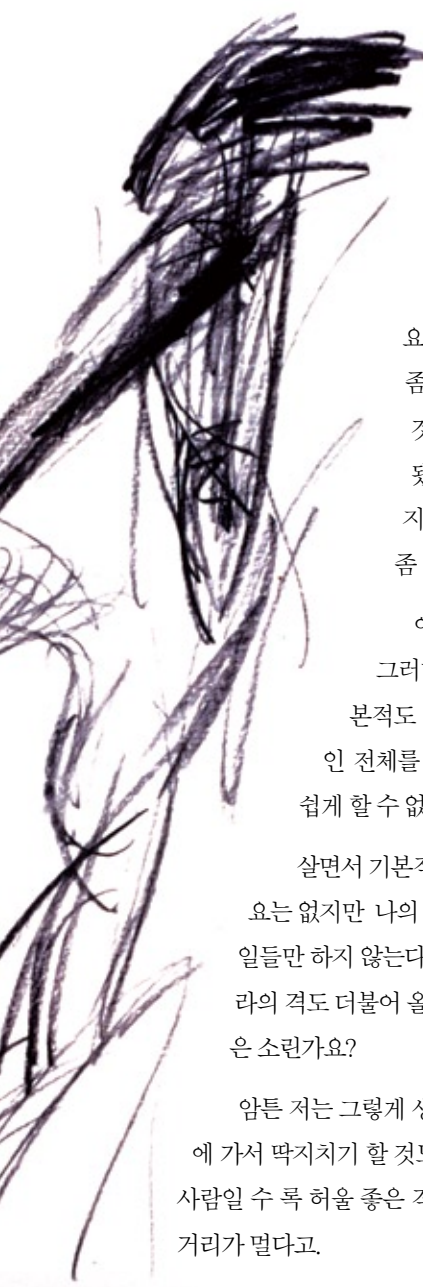
다. 남편이 서울에 파견됐을 때 있는 동안 월급에 생명수당까지 받았답니다. 그네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건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험시대라는 생각을 해서였겠지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를 잘산다고 어깨에 힘줬던 우리가 유럽 어느 변방의 내전을 겪는 국가 취급, 혹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국가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짝 자존심도 상하더군요.

마이클 화이트, 젠트리 리가 쓴 <가상의 역사 21세기>를 보면 한국의 미래는 일본의 생활수준과 GNP를 추월하고 가깝히 강자로 부상한다고 했는데 다 깃목 같은 소리였다는 건지. 오늘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이래저래 뒤숭숭합니다.

동생이 농담처럼 그러더군요. 전쟁이 터지면 들어 올 거냐고. 저는 뭐 구한말 나라가 망하자 요즘의 수백억대 재산을 정리하고 가솔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평생 독립운동 전념한 이회영의 후손도 아니고, 조상 중에 누군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전설 같은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나라에서 공항을 폐쇄 시키지 않는 한은 최소한 들어 가야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뭘, 정 그러면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하고 말할 분도 있었지요?)

여하 간에 남편에게도 농담처럼 들어가서 예비군 혹은 민방위에라도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으로서 그것이 지켜야 할 ‘격’ 이라고.

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품격, 인격, 자격..... 더 추가하자면 국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칼럼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국가에도 격, 즉 ‘국격’이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격은 국민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



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잊고 산다면 갑자기 부자는 됐지만 본데없는 졸부와 다를 게 없지요. 사실 그런데 우린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종종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본적도 있고, 개인의 삶이 어찌면 한국인 전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할 것을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마음에 물어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만 하지 않는다면 나의 격은 지켜지는 것이고, 나라의 격도 더불어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너무 공자 같은 소린가요?

암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투 쓰기 좋아하고 집에 가서 딱지치기 할 것도 아닌데 명함만 남발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록 허울 좋은 격에 집착 할뿐이지 진정한 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역사를 봐도 그랬습니다. 감투 쓴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던진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오고 가꿔져 온 것입니다. 간혹 국가에 헌신적인 위정자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단언하건데 요즘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찌면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없고 겁 없는 말이 '나 하나 썸' 일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얼굴을 비추는 사람보다는 연평해도에서 숨진 군인 혹은 민간인들이 국가의 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만들어



유춘강/소설가, 카피라이터

가는 거겠지요.

유대인과 아랍인이 다른 이 유는 분명 국민이 지켜가는 격, 위정자가 지켜가는 격에 대처하는 자세가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피했던 아랍학생들과는 달리 주저 없이 학업을 중지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지켜주었던 격이 분명 밀거름이 돼서 국가의 격을 높였을 겁니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애국심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하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충실하다보면 밖에서 봐주는 우리의 모습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구 달려봤습니다.

너나 잘하셔! 하실 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자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웬지 연평도에서 전사한 두 청년과 작업 중 돌아가신 어르신 두 분을 생각하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덕분에 정서적으로는 이미 축지법을 쓰는 세상이니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저 죽기로 지키는 수밖에 없지요. 내가 버리고 간 집을 남들이 대신 지켜주겠진 않지요. 빈집털이를 당할지언정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토를 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벌였을 때 영국여왕이 대처한 자세가. 그녀는 아들을 먼저 전쟁에 참여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격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줄 분들이 얼마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듣기론 군대도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 받으신 분들이 많던데.....수루에 홀로 앉아서 나라격정에 밤을 지새우면서 이순신 장군이 지었다는 시한 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정녕 그분 같은 분들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격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한인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 이메일 변경  
[haninnewsinni@gmail.com](mailto:haninnewsinni@gmail.com)

- 6. 쓰나미 화산 이재민에게  
한인사회의 온정을 보냅니다.
- 7. 족자에서 날아온 편지
- 14. 중년이야기 만학도 이재원 씨
- 10. 드라마 가시 2010 2010년 한인사회 이모저모
- 16. 시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도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 18. 유춘강의 긍정 킬럼 격, 있으신가요?
- 22. 한인사회 소식

- 교민사회 모의 재외국민 선거 실시
- 재외선거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 한인사회, 북한 연평도 도발 강력 규탄
- 김문환씨, 인니 현대사 강의: 하비비, 구스두르, 메가와띠 대통령
- KOCHAM, 대사관, 관세평가 및 보세구역 개정법규 설명회 개최
- 교민들, 나환자들 위한 사랑의 마을 짓는다
- Kocham · 한국거래소, 한국중시 상장설명회 개최
- KOICA,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위한 첫 조림 실시
- 중부자바 한인사회, 한마음으로 화산 이재민 도움 나서
- 김영민 편집위원, 한인뉴스 감사패 수여
- 색동회, 현지물 서 이재민 돕기 연주회 열어
- 교민 예술가들, 족자 이재민 돕기 자선 작품 전시회 개최
- 인니진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한 동반 성장 다짐
- 'UI 한국문화의 날' 다시 한번 대박 행진
- 최병우 씨, 강진피해 해당지역에 건물 전달
- 김대환 명성텍스 사장, 제24회 섬유의 날 동탑산업훈장
- 여성가족부, 현지 맞춤형 IT 교육
- JIKS 소식
- 인니진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한 동반 성장 다짐
- JIS UN Day 행사
- 꿈 많은 SPH 12학년생들의 도전



# Contents

38. 인니문화연구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학생부)

- 마음 속 섬을 이어주는 곳, 람퐁

41. 12월 공지사항

45. 생활정보

50.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뱀이 꽃으로 불리는 플로레스

53. 인도네시아법률해설 민사소송법 4

57. 대사관 임시 청사 이전 안내

58. 안전한 인도네시아 생활 가이드 북

64. 이병수의 보험교실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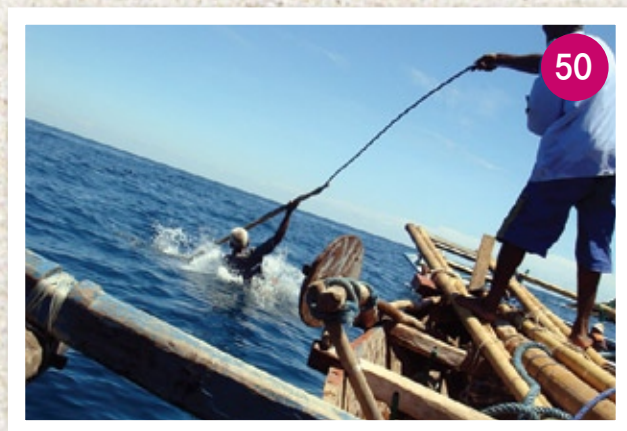
68. 와칭코리아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

70.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73. 김신의 알고 싶은 컴퓨터 이야기 컴퓨터 사용 증후군

76. BOOKS

78. MOVIE





## 교민사회 모의 재외국민선거 실시

”

총유권자 중 70% 참여로 성숙한 교민의식 보여줘  
참여율 모의선거 세계 26국 중 세번째로 높아

”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대비한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재인니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지난 11월 14일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처음 투표를 경험해서인지 투표소에 들어와 생소한 듯 어리둥절해 했으나 투표진행위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차분하게 투표한 후, 모의 재외선거 관련 설문서에 꼼꼼히 기재했다.

몇몇 유권자들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첫날은 마감시간 까지 총 유권자의 약 10% 만이 투표에 참가해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서인지 교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둘째날엔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유권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이번 투표율은 모의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한 26개 국 중 스페인과 레바논 교민사회에서 나온 투표율의 뒤를 잇는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서 인니 교민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을 보여줬고 향후 실제 투표



참여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자 181명 가운데 2명이 재외선거인이고 나머지 179명은 국외부재자 선거인 자격이어 대부분이 국외부재자 자격인 교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은 오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내 거주 유권자들처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교민 3만8천명 중 현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한인의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해 자카르타와 외곽의 공업단지에 밀집해 있다.

## 재외선거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 Q : 재외선거란?

A: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외국에 거주하며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다.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5일까지 발송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공관 또는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면된다.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국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후 개표과정을 거치게 된다.

### Q: 외국에서 재외선거관리는 누가?

A: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상시적으로 두어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 2012년 재외선거 일정표

사무일정	실시사항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12. 5. 11.	'12. 6. 22.~'13. 1. 18.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공관 경유)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11. 11. 13.~'12. 2. 11.	'12. 7. 22.~'12. 10. 20.
	국외부재자신고(공관 경유)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2. 2. 22.~'12. 3. 2.	'12. 10. 31.~'12. 11.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 3. 3.~'12. 3. 7.	'12. 11. 10.~'12. 11. 14.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2. 3. 12.	'12. 11.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12. 3. 17.~	'12. 11. 24.~
선거일전 24일부터 선거일전 23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12. 11. 25.~'12. 11. 26.
선거일전 15일부터 선거일전 1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12. 3. 27.~'12. 3. 28.	-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재외투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12. 3. 28.~'12. 4. 2.	'12. 12. 5.~'12. 12. 10.
선거일	개 표	'12. 4. 11.	'12. 12. 19.



## 한인사회, 북한 연평도 도발 강력 규탄

- 한인회·민주평통, 규탄 결의문 발표
- 북한 3대세습의 자금줄인 평양관 이용 금지 촉구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와 민주평통 인도네시아 지회(지회장 김광현)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연평도를 포격하는 용서받지 못할 무력도발을 자행해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이 사망, 34명이 부상을 당하고 민간가옥 파괴 및 산불 등을 발생시키는 등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확고한 대북 입장을 밝혔다.

한인회와 민주평통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겨냥한 잔혹한 만행 행위임을 밝히고 즉각적인 사과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묵시하고 대한민국의 단합을 해치는 친북세력 및 일부 정치인의 태도를 규탄하고 재인니 한인동포들은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북한의 만행에 대해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자금줄인 북한식당(평양관)을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조규철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해 동족을 살생한 것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전하고 “동정심으로 인한 북한 도움의 재고가 필요하며 우리가 먼저 단결하지 않으면 연평도 도발이 다시 일어 날수 있음을 모든 교민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연평도 도발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동포안내문을 발표하고 북한 업소(음식점) 및 북한인사(주민)와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및 신변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을 밝혔다.

### 대사관 동포안내문

####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당부

1. 11.23(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교민 여러분께서는 북한 업소(음식점 등) 출입 및 북한인사(주민)와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등을 포함, 신변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환씨, 인니 현대사 강의 하비비, 구스두르, 메가와티 대통령

한인뉴스 논설위원 김문환씨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강의 그 네번째 이야기가 지난 10월 30일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현대사 강의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정국의 불안으로 6년 동안 세 번이나 바뀐 대통령들-바하루딘 유슈 하비비, 압둘라흐만 와히, 메가와티 수카르노뿌트리-이 주제가 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에 오른 하비비 대통령은 남부 술라웨시 출신으로 반동공대와 독일의 라이니시베스트펠라시 공과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로서 수하르토 시절 과학기술연구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체 항공기생산의 공이 큰 인물이지만 수하르토 처벌이나 개혁에 적극적인 가담이 어려운 상황였기 때문에 차기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국민경제(Ekonomi Rakyat)’라 불리는 강력한 분배정책 추진으로 화교 소유기업들의 공기업화 정책 추진으로 화교자본이 대규모 해외 이탈을 야기 시켰으며, 소극적인 수하르토 유산 청산 및 동티모르 사태 방치등의 비판으로 1999년 10월 국민협의회(MPR)가 그의 신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하야하게 된다.

구스두르로 불리는 압둘라흐만 와히 대통령은 1999년 6월 총선에서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이 최다 득표를 했으나 야민 라이스가 앞장 선 뿌로스 똥아(중심축이라는 의미로 중도세력)의 결과로 그해 10월 국민협의회 총회에서 소수정당인 국민각성당(PKB)의 총재였던 구스두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는 관료주의와 격식을 타파하고 화교와 성적소수자 등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화합을 강조했으며, 음력설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허용하고 중국인의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등 다원주의를 실천했다.

하지만 그는 조달청(Bulog) 공금 400만 달러 전용 사건인 블록게이트와 브루나이 불키아 국왕이 아제 구호금으로 기부한 200만 달러를 횡령한 브루나이게이트 등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고 하야한다.

메가와티 수카르노뿌트리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 사상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다.

메가와티는 1986년 수카르토의 국가영웅 추대 행사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1999년 6월 총선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고도 구스두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가 구스두르가 쫓겨난 후 대통령에 오른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 수카르노의 딸이라는 후광과 깨끗한 지도자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얻었으나 정치능력이나 민주화 의지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메가와티도 기독교, 불교, 힌두교 및 중국계 인물의 등용으로 다원주의를 추구했으나 오히려 집권기간 동안 중족과 종교 및 사회계층간 갈등이 고조되고 2002년 발리를 시작으로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했고 불법도박, 도벌, 도광이 횡행하는 등 취약한 통치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KOCHAM·대사관, 관세평가 및 보세구역 개정법규 설명회 개최

지난 10월 1일자로 관세관련 법규가 개정, 발효되고 또한 보세지역의 관세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한인봉제기업들이 계속해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한인상공회의소와 대사관은 지난 11월 4일 리즈칼튼 호텔에서 관세청 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약 150여명의 한국 기업인들과 현지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정 관세평가 관련 법률 내용 및 보세구역 관련 정책과 법규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주최했다.

김호영 대사는 인사말에서 “관세법규는 조세법과 통관법적인 성격을 갖고 HS와 FTA 등과 같은 각종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국제법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 환경 및 국내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정, 변경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개정된 관세평가와 보세구역 정책 및 법규 내용에 대해서 관세청 담당 국장이 직접 설명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에 걸친 설명회는 헤리 크리스 띠오노 관세청 기술국장이 개정 관세평가 법규에 대해 아궁 꾸스완도노 관세청 통관국장이 보세구역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연사로 나섰다.

헤리 국장은 “통관할 때 레드라인(Red Line)과 옐로우라인(Yellow Line) 등 고위험군

”

헤리 국장: 개정법규-세관과 이견 시 소명기회 부여  
아궁 국장: 보세구역업체서 생산일체 하청은 불법

”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낮게 신고한 품목에 대해 종전 법규정은 즉시 벌금(노똥)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올해 10월1일부터 발효된 새 법규정은 고위험군 품목이나 업체도 세관 당국과 이견에 대해 협의 하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아궁 국장은 “보세구역에서 제조공정의 일부는 하청을 줄 수 있으나 봉제업체에서 생산 일체를 하청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위법”이라며 “관세규정을 준수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우선라인(Priority Line)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KOICA,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위한 첫 조림 실시



”

2011년 까지 300ha 조림해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등록, 탄소배출권을 확보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산림청(청장 정광수)과 함께 2010년 11월 10일 인도네시아 롬복(Lombok) 섬에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위한 첫 조림을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300ha를 조림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인 롬복 섬 조림사업은 금년에 33ha를 시범적으로 조림하여 성장상태 등을 모니터링한 후 2011년 267ha를 조림할 계획이다.

롬복 섬의 지역 주민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첫 조림에는 서부 누사똥가라(NTB) 주 부지사, 조림지인 동부 롬복 군의 군수, 인도네시아 산림부 관계관 및 최성호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25년 이상 황폐된 산림에 함께 나무를 심었다. 특히, 롬복 섬의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이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한 황폐지 복구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내 학생 500여명을 ‘숲 지킴이’로 위촉하는 한편 ‘희망의 나무’ 2010 그루를 나누어주는 행사도 가졌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최성호 사무소장은 이날 지역주민과 함께 첫 나무를 심은 후, “롬복 섬의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산림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까지 조림을 완료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사업을 등록하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탄소배출권 조림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화 약 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인도네시아 롬복 섬 동부지역에는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중부지역 10,000헥타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 중부자바 한인사회, 한마음으로 화산 이재민 도움 나서

중부자바지역(중부자바/족자카르타 접경)에 위치한 머라빠 화산폭발로 인명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 구호를 위한 물품 및 성금을 모아 피해지역에 전달 및 봉사활동으로 한마음 된 중부자바 한인사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합니다.

금번 구호품 성금은 중부자바 내 한인, 한인기업, 현지 근로자, 현지학생 및 가정부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인회 및 교회(스마랑 한인교회) 통해 모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모은 구호품은 11월8일 마걸랑, 슬레만, 끌라멘, 묘요랄리 등 5개 구호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11월9일 교회 목사, 한인회장단과 한인회원 25명이 화산재로 피해가 극심한 마걸랑 시 문떨란 지역과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슬레만 지역의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족자카르타의 중심 구호소 마구오하르조 스타디온 2곳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팝콘, 풍선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위로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싹트기를 기원하며 돌아왔습니다.

또한, 한인회 회장단은 11월10일 오후 별도로 각 한인회원 사들로 부터 모아진 성금으로 이불 및 쌀을 구입하여 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의로부터 기탁 받은 성금(일천만 루피아)과 함께 중부자바 주지사를 접견하고 전달하였습니다.

### 1. 교회를 통해 수집된 구호품 전달 현황.

- \*. 쌀(2,000Kg), 설탕(500Kg), 분유, 비누, 칫솔, 치약, 여성 생리대, 기저귀 생필품 및 과자류 등 기타
- \*. 의류 약 1,500점 및 마스크
- \*. 이불 300점

### 2. 한인회원사 성금 및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협의회 기탁금 전달 현황.

- \*. 한인회원사 성금 2천5백만루피아로 이불/담요 100Set, 쌀 1,000Kg
- \*. 한인 봉제 협의회 기탁금 1천만 루피아

금번 성금 및 구호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면 관계상 세부사항을 정리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김영민 편집위원, 한인뉴스 감사패 수여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이 지난 11월 25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김 편집위원은 2006년부터 5년여 동안 한인뉴스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인뉴스가 한인뉴스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대표적 소식지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하고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해 왔다.

김 편집위원은 “귀국으로 인해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한인뉴스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해 가는 한인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데 있어 교민들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인뉴스는 지난 12월 1일 박정자 씨를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맞이했다.



## 색동회, 현지몰서 이재민 돕기 연주회 열어

색소폰동호회(이하 색동회)가 지난달 수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온 족자 머라뻬화산과 먼파와이 지진·쓰나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위한 자선행사를 개최했다.

색동회는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남부자카르타의 유명몰인 뽀독인다몰에서 자선 모금함을 준비하고 10여년간 갈고닦은 색소폰 실력을 뽐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색소폰 음률에 쇼팽몰을 찾은 현지인들의 발길이 하나 둘 멈추었고 모금함에 작은 정성들을 모았다.

이날 이일하, 강희중, 배종문, 이상일, 김주철, 이강용, 임채실, 최병우 씨 등 8명은 흘러간 팝송, 우리 노래, 인도네시아곡 등을 혼신을 다해 연주했다.



## 교민 예술가들, 족자이재민 돕기 자선 작품 전시회 개최

교민 예술가들이 지난 10월 말 족자와 남부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화산 및 쓰나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선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회화, 사진, 공예, 도자기, 서예 등의 분야에서 교민예술가 10인이 참여, 평면 작품과 입체작품 총 100여점이 전시되어 12월 1일 까지 일주일간 남부자카르타의 간다리아 물에서 ‘아름다운 나눔 자선 작품전시회’란 이름으로 열린다.

금번 자연재해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결성된 『아름다운 나눔』(대표 강희중)은 각계 교민들의 모임으로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나 소장품들을 전시,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어려운 현지인들의 구호, 재활을 돕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 외국인 사회로서 점점 양적 질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교민사회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교민문화를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치혁 『아름다운 나눔』 회원은 일주일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족자카르타 화산 이재민 지역을 직접 답사 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니진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한 동반 성장 다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한마음 대회가 지난 11월 16일 자카르타 까복 골프클럽에서 개최되었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클럽이 주최하고 주인니한국대사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한인상공회의소가 후원한 한마음 대회는 약 70여 기업인들이 참석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야기 했다.

이른 아침 골프대회로 시작한 한마음 대회는 오찬 후 중소기업청의 동반성장 정책 소개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동반성장 사례 발표 내용의 세미나로 마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안병화 사무총장은 “자사의 노동, 자본, 기술에 의존했던 기업경

쟁력이 현재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 대·중소기업에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하고 국내 모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디스플레이인 능동형 유기 발광다이오드(AM-OLED)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양산화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와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 제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 발주 방지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추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UI 한국문화의 날’ 다시 한번 대박 행진

UI 한국학과 학생들의 한국문화사랑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지난 11월 6일 대사관과 한인회, 동중 인도네시아, 키테코, 더 페이스샵 등의 후원으로 UI 캠퍼스 내 가장 큰 규모의 강당인 Balairung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는 2천명여명의 예상치 못한 관중 동원 바람을 일으킨 지난해 행사를 훨씬 뛰어 넘은 3천5백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들어 캠퍼스 내 가장 큰 규모의 강당인 Balairung 장내를 꽉 채우는 등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현지에 불고 있는 한국문화의 바람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한 열기를 보여줬다.

행사내용도 전년도에 비해 한층 다양화 되고 참여자들의 분포도 다각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바패, KOICA 태권도시범단, 리틀램유치원, UI BIPA 학생 등 전년도와 동일한 교민들의 공연참여 외에 수 달 전부터 노래와 댄스부분으로 나뉘 치열한 경쟁을 펼친 ‘한국문화의 날 컨테스트’ 우승자들의 공연, 한사모 비보이팀 등의 특별친선공연 및 관객들의 즉석 춤 경연대회 등이 더해져 한층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행사장 내,외부에 특별 설치된 부스에서는 한국 연애인 사진 및 달력,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손님으로 북적 났고 한복포토세션 장이 준비되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자신을 카메라에 담는 장면들이



연출됐다.

하지만 대박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관한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학과의 한 학생은 “모두 유료관객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행사를 너무 잘 하려다 보니 높은 예산 충당이 큰 문제가 되었다”며 준비기간 동안 있었던 고민을 털어놨다. 한 관객은 “주로 10대 20대인 관객들의 눈 높이를 의식했겠지만 너무 유명 아이돌 팬클럽 위주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한국전통문화의 실종을 언급하기도 했다.





## 최병우 씨, 강진피해 빠당지역에 건물 전달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며 상공회회소 부회장이인 최병우(PT.Aneka Panel Indonesia, PT. Multi Konstruksi Utama 사장)씨가 지난해 강진으로 피해가 심한 수마트라섬 빠당지역에 회의실 한 동 (3억 루피아 상당)을 지어 2010년 9월 3일 Bupati 인 DRS. H. Fauzi Hahar, M. Si에게 전달하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최병우씨는 강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구진행상황이 미약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힘겨운 나날을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대환 명성텍스 사장, 제24회 섬유의 날 동탑산업훈장

교민 봉제업체 명성텍스(주)의 김대환 씨가 지난 11월 18일 섬유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기업인의 수범을 보인 공로로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면방회사인 태화방직과 의류수출기업인 쌍방울 상사를 거쳐 지난 94년 6월 명성텍스(주)를 설립한 김대환 씨는 ‘자라’브랜드로 유명한 세계 1등 패션소매기업 스페인 인디텍스를 주거래선으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98년 인도네시아에 종업원 2500명 규모의 25개라인 봉제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6000만 달러 규모의 캐주얼 의류를 ‘자라’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다. 또 세계 2위 유통기업인 타켓에도 우븐 캐주얼 의류를 공급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현지 맞춤형 IT 교육



여성가족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IT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IT 교육훈련은 인도네시아 15개 지역 여성-IT 관련 분야 중견 공무원 30명을 초청, 지역개발과 여성 e-Biz 사업, IT 기술 발전, 여성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사업은 현지 사회환경과 정책 실정에 맞는 맞춤형 IT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자카르타 소재 머나라 페닌술라 호텔에서 지난 사흘간 열린 정책관련 강의에선 지역개발과 여성 e-Biz 산업, 인도네시아의 여성 IT 정책 성공사례 등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번 교육 기간중 정보통신 성공사례 지역인 중부 자바주(州) 빠갈롱안을 방문, 전자정보센터와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텔레센터(Telecenter)를 둘러보고 정책의 실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IT 교육성과와 관련해 컨퍼런스를 개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원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가자들의 정책 적용 사례와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60개국 240명의 여성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e-Biz, IT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테일리코리아 제공]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15일 창간 이후 교민사회의 길라잡이로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올 후반기를 맞아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컨텐츠 확보를 통해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배상





### 미술전시회

2010년 11월16일(화)~23일(화)기간 동안 초등교사에서 1~6학년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전시 되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1년간 수업시간을 통하여 정성껏 만든 작품들입니다. 학생들은 미적 대상을 발견하여 느끼고 경험을 하며 자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길 기대합니다.



### 동화구연대회

2010년 11월 23일(화요일) 2교시와 4교시에 걸쳐 소강당에서 1,2학년 동화구연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2학년 어린이들의 듣기, 말하기 공부는 물론 지식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이번 대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으나 예선을 거쳐 각각 9명의 학년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향상된 1,2학년 어린이들의 구연 실력은 듣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수준 높은 대회였습니다. 좋은 동화구연을 위하여 애쓰신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학교발전협의회 중간보고회

지난 11월 12일 금요일, 교내 소강당에서 초등 학부모대표 어머니 10여분과 정무용 부이사장님, 선종복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JIKS 초등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발전협의회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JIKS발전 협의회는 “up! up! JIKS”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JIKS를 해외 최고 명문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지난 9월 24일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발대식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내년 JIKS 초등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급, 학년별 야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교생 1인 1기, 1악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 찾기, 너 알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정체성교육의 일환으로 KOREAN DAY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의 교육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며 방과 후 영어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6학년에 Reading Program을 도입할 예정이며 다른 학교와 스포츠교류, Face book 등의 인터넷상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JIS UN Day 행사

<취재: 길나연 / JIS 11학년>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던 11월 25일에 JIS (자카르타 국제학교) UN Day 행사가 열렸다. UN Day란, United Nations Day의 약자로 다채로운 성장 배경과 문화에서 자란 JIS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는 축제의 행사다.

JIS는 36여 개 국가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로서 UN day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학교 캠퍼스 곳곳에 수놓아진 다채로운 색들은 화려하늘과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모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의상이나 모국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상을 차려 입었다.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은 주로 고운 빛깔의 한복이나 Korea Legend 축구 응원복, 또는 태극기를 두르고 다녔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처럼 정해진 전통의상이 없는 학생들은 페이스 페인팅으로 얼굴에 국기를 그리고 의상을 국기 색깔에 맞춰 입기도 했다.

UN Day가 이색적인 행사인 것은 각 나라의 독특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Food Festival 시간이 다가오자 새콤달콤하고, 구수하고, 식욕을 돋우는 맛있는 냄새가 학교 캠퍼스에 퍼져나갔다. 일본의 냉우동, 싱가포르의 입에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호주의 달콤한 디저트, 인도의 매콤한 카레 등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한국학생 어머니회에서 준비하신 불고기 덮밥과 비빔밥은 이미 모든 외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메뉴여서 폭발적인 인기였다.

또한 한국 코너는 큰 태극기와 포스터들로 꾸며 졌으며 청사초롱을 달아서 멀리에서도 눈에 띄게 돋보여, 라틴 아메리

카, 캐나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여러 코너 가운데 가장 깔끔하고 멋있었다.

UN Day의 핵심 행사인 각국의 민속 공연 시간에 한국 학생들은 그 동안 부채춤, 사물놀이, 난타 등을 공연했었다. 하지만 올해 한국 학생들이 새롭게 ‘태권무’를 선보였다. KOICA로 나와있는 세분의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웠고 두 달 넘게 열심히 연습했다. 우렁찬 기합소리가 JIS 대강당에 울려 퍼지고 돌려차기, 옆차기, 송판 격파 등 맘 흘러며 갈고 닦은 멋진 실력을 뽐낸 한국 학생들의 공연이 관람석의 열광 속에 opening으로 시작됐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성공적으로 끝 났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특색을 나타내는 공연을 했다.



UN Day는 화려한 의상이나 입고 세계 각국의 음식만 접하는 것만 이 아니다. JIS 교장 선생님인, Mr.Clark는 ‘UN Day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존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UN Day 행사를 통해 JIS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도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국 학생으로서 한국을 알릴 수 있음에 뿌듯했고, 우리 문화와 음식 그리고 태권도를 알리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꿈 많은 SPH 12학년생들의 도전

<SPH 학생회 부회장 12학년 박 영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 Lippo Village에 위치한 Sekolah Pelita Harapan International (이하 SPH) 캠퍼스 전체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퍼졌다.

지난 11월 5일 인도네시아어 A1(BB 언어 선택과목 중 하나) 12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획, 제작 그리고 연출을 한 연극을 전교생들에게 선보였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연극은 개교한지 20년도 채 안 되는 SPH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SPH는 매년 11월을 언어의 달로 지정하고, 군도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전통문화, 즉 지역별 민속 춤, 음식 그리고 의상들을 판매 또는 전시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 열리는 12학년 주도의 연극은 백미 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금년 참가자들은 12학년생 Elizabeth Ho라는 학생이 기획한 'Orpheus (오르페우스)'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두 달여의 피나는 연습 끝에 막을 올린 '오르페우스'는 부모님의 과도한 자식 사랑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연극이다. 부유한 중국계 인도네시아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주인공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친누이를 잃은 후 상실감에 빠져 자신의 삶조차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삼아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오르페우스의 삶을 이끌어 갈려고 했고, 이 도중, 오르페우스는 심한 절망감에 빠져 한밤중 가출을 하게 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들린 카페는 남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

던 자신의 누이를 맞닥뜨린 것이다. 누이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 인도네시아인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오르페우스의 부모는 그의 누나가 부모의 완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백년가약을 맺자, 오르페우스에게 자살이라는 끔찍하고 거짓된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더 이상 자신들이 딸의 삶에 관여할 수 없게 되자, 부모는 오르페우스의 삶을 그들의 뜻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부모, 오르페우스 그리고 누나 내외를 포함한 모든 배역의 재회를 기점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을 맺는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다. 부모 없이는 그의 자녀 또한 존재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말이다. 급격하게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의 무서움과 위험성을 알기에 부모들은 더욱더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맹수가 들끓는 초원 한복판에 내던져진 연약한 한 마리의 어린 가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어미 가젤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한 가정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볼 때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요즘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대학입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맡기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부모님에 의한 결정이 학생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오르페우스'는 이 사회적 풍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마음 속 섬을 이어주는 곳,

# 람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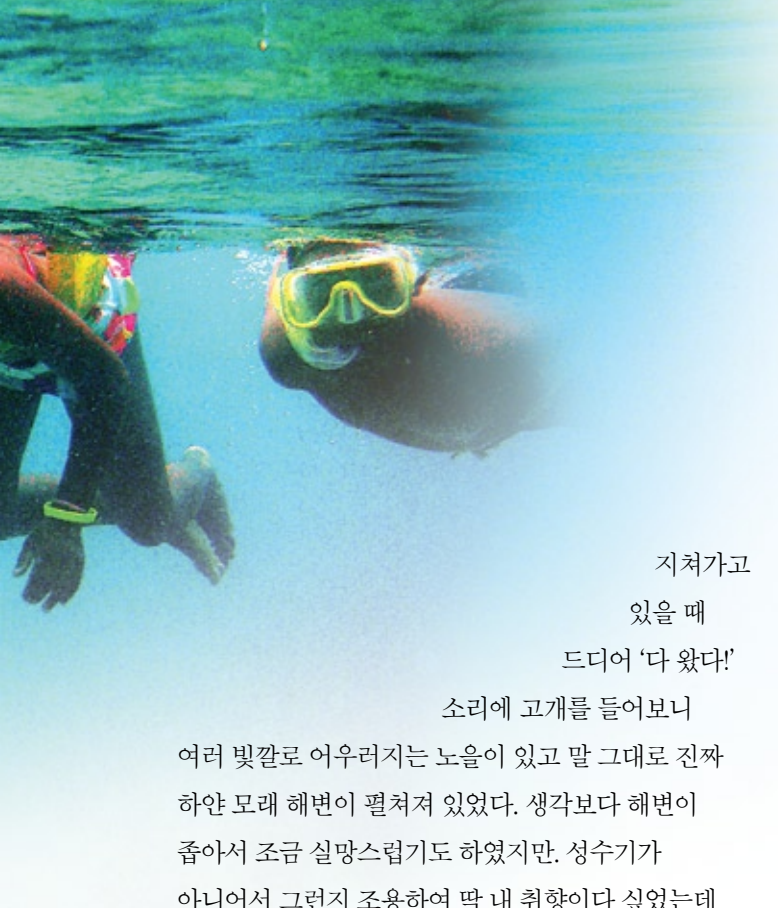
김승연(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우리 가족만 보아도 알겠다. 여행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물론 어찌다 약간의 소금 끼와 짜증, 불편함과 아쉬움이란 놈이 꼬리를 그림자처럼 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다. 자카르타가 속한 자바 섬 말고도, 술라웨시, 수마트라, 깔리만탄, 이리안자야 등등.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온 지 어느덧 3년을 넘기는 동안 반둥, 족자, 솔로, 빨라부안 라뚜, 안예르 등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만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그건 순전히 내가 배 멀미를 하기 때문이니 누굴 원망하고 말 것도 없다. 섬나라에서 배 멀미라니? 아쉽기만 할 뿐이다. 하기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어른이 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으니 그보다는 좀 나은가?

그래서 다른 섬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람퐁Lampung은 자바가 아닌 수마트라 섬의 남단인데도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신기한 일이다. 람퐁에 가려면 우선 메라머erak 항구까지 가야했다. 마침 우리 한국학교만 방학이어서 그런지 도로가 혼잡하지 않아서 휴게소에서 자주 쉬 수가 있었고, 특히 고무나무 조림지의 수많은 나무들이 줄 맞추어서 있는데 나무 밑에는 고무 액을 받는 접시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은 흥미로웠다. 푸르른 논과 다른 한쪽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이삭을 베는 모습과

함께 3모작을 할 수 있는 이곳의 환경이 부럽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시골풍경들과 맑은 하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이 항구 메락에 도착하였다. 차안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배안의 주차장으로 이동하니 배가 움직인다. 그러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는 차 밖으로 나와 배 갑판 옆으로 섰다. 까만 피부의 아이들이 높은 배 갑판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닷가에 사니까 수영은 익숙하겠지만 까마득하니 높은 곳에서 다이빙 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걱정스러웠다. 배는 점차 수심이 훨씬 깊은 순다해협을 가르고 있었다. 바다는 질푸른 카펫처럼 너무도 평온하고 따뜻한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해협을 건너는 3시간. 준비해간 김밥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바다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배 안에는 에어컨시설이 되어있는 좌석과 그렇지 않은 좌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 생각엔 굳이 돈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에어컨이 있는 룬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바깥에도 의자가 있고 바닷바람이 시원하여 앉아 놀다 보니 어느새 도착 안내방송이 들린다.

항구에 도착해서도 우리의 목적지 빠시르 뿌띠(pasir putih: '흰모래')까지는 아직도 2시간 여! 도로는 좁은데 자바 섬에서 온 큰 화물차들이 많아서 짜증도 나고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드디어 '다 왔다!'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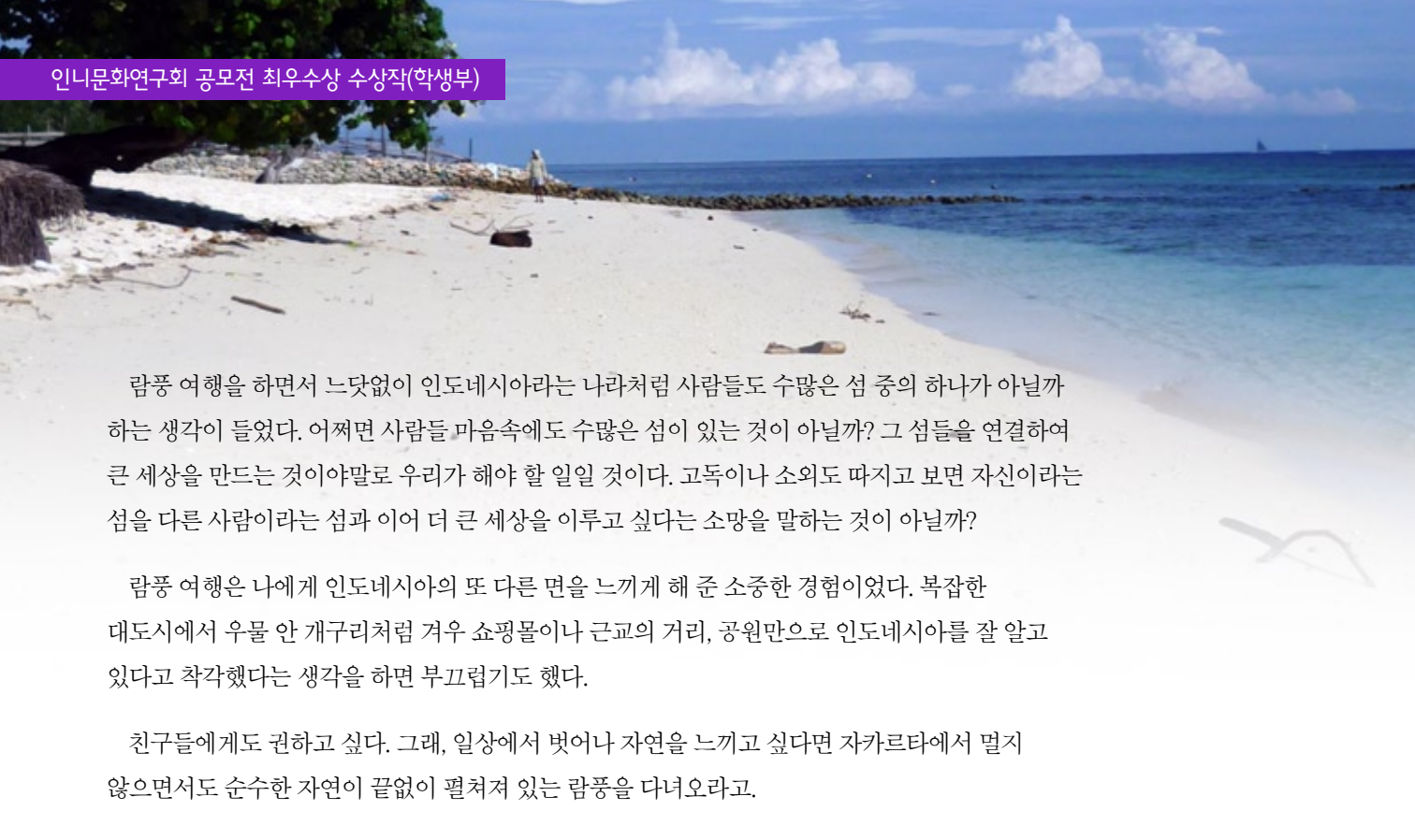
여러 빛깔로 어우러지는 노을이 있고 말 그대로 진짜 하얀 모래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 생각보다 해변이 좁아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였지만,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조용하여 딱 내 취향이다 싶었는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를 정해야겠기에 발걸음을 다시 돌려야했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라면 더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해변을 빠져나왔다. 다시 내일 아침 해변으로 나올 생각으로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숙소에다 짐을 풀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호텔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 앉아 모처럼 많은 별을 볼 수 있었다. 자카르타에서보다 훨씬 밝고 선명했던 별, 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 하나. 모기가 없어서 걱정 없이 잘 수 있었다.

다음날, 배를 빌려서 20분 정도를 타고 빠시르 뿌티 앞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갔다. 섬은 생각한 것보다도 한적하고 깨끗했다. 갈매기 모양의 날개를 가진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저기 양식장 시설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공장 시설들도 보였다. 바닷물을 손으로 가르며 바닷속을 보니 깊은 바닥까지도 볼 수 있어 흥분과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섬에는 작은 가게가 있어 볶음밥인 나시고령과 라면 미고령, 음료수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한가로이 떠있는 한 두 척의 배와 넓게 펼쳐진 에메랄드빛의 푸른 바다는 광고 사진이나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하얀 모래사장 주변을 수영하면서 알록달록 옷으로 차려입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해파리 등도 볼 수 있었다. 때 묻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며 도망가지 않고 이따금 스노클링을 하는 나의 다리나 손을 와서 간질이기도 한다. 이곳의 바다는 자카르타 근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맑은데다가 물빛까지 매혹적인 옥빛이었다. 물이 얇은 곳엔 큰 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나무 기둥이 있었는데 앉아 놀기도 좋았고 한 낮의 햇살을 피할 수 있게 그늘을 넓게 드리운 아름답리나무 옆에서 물장난을 하며 동생과 놀았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식량과 자원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욕심과 문명으로 인한 오염까지 해결해 주니까. 최근에는 점점 더 대규모화 된 환경파괴와 사람들의 부주의로 미래의 재앙까지 예고되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바닷물은 구름으로 명암을 바꾸어가며 물고기를 쫓는 나의 시선을 어지럽힌다.

섬의 가게 아저씨는 섬 뒤쪽의 구멍 뚫린 바위를 구경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섬에서 나와야했다. 아빠는 스노클링 하다가 해파리의 공격으로 피부가 빨갱게 반점처럼 부어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다. 대형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열대어들을 우리에게도 보여 줄 수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하면서 스노클링 중에 보았던 산호나 물고기 이야기를 돌아오는 내내 들려 주셨다.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도 직접 본 것처럼 또렷하게 여러 가지 색깔의 물고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보니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면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람퐁 여행을 하면서 느닷없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처럼 사람들도 수많은 섬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에도 수많은 섬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섬들을 연결하여 큰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고독이나 소외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라는 섬을 다른 사람이라는 섬과 이어 더 큰 세상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람퐁 여행은 나에게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면을 느끼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복잡한 대도시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겨우 쇼핑물이나 근교의 거리, 공원만으로 인도네시아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도 했다.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그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자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람퐁을 다녀오라고.

### 수상소감

사람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를

와, 이런!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다니, 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에서도 마구 쿵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요. 수상 소식을 들으니 람퐁의 풍경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곳의 풍경과 느낌은 언제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저 이런저런 생각을 늘어놓은 것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다니, 감사함과 기쁨이 마구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4년 전, 한국에서 이곳 인도네시아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을 되돌아보면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인도네시아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그 나라의 기후를 비롯하여 언어, 음악, 전통 등 모든 분야가 종합되어 오랜 세월 문화로서 나타나고 이해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문화의 힘을 무엇보다 강조하셨겠지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탈출의 한 방법으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누구나 여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가난하지만 소박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람퐁(LAMPUNG), 그 이름 만큼이나 예쁜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자연과 사람의 소중함, 그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곳으로 남았으면 하는 소망을 함께 품어봅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이해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승연이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한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 시행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0. 09. 01부로 서울-자카르타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 기내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완료하는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내출입국심사제도(IMMIGRATION ON-BOARD)는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2명이 서울발 자카르타행 Garuda항공에 탑승하여 기내에서 우리 국민 등 승객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입국심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교부하며, 동 절차를 마친 승객은 도착지인 수카르노하따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이민청 직원에게 반납함으로써 입국절차가 완료됨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Garuda항공 체크인카운터 옆에 마련된 도착비자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도착비자수수료(25불)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기내에서 이민청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동 제도 시행으로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받기 위한 만성적인 대기시간(최대 2시간 정도)을 없애 당지 입국에 따른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당지 이민청은 동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인천공항-발리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  
(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sisngmin@centrin.net.id

###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월화차회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 720-4211, 0818-491-325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한국어 강좌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 부인회 취미 활동반 안내

- 꽃꽂이반 개강 -

요일 : 화요일  
 시간 : 09:00 ~ 11:00  
 장소 : Taman Gandaria C-23  
 연락처: 021)739 6444,  
 hp : 0811-834-026  
 (사) 한국 꽃예술작가협회 루시 플라워회  
 회장 최정순

##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당부

1. 11.23(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교민 여러분께서는 북한 업소(음식점 등) 출입 및 북한인사(주민)와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등을 포함, 신변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대한항공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 1. 마일리지 유효 기간 10년으로 확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 2.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 3.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였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되어 소액의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약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2010.10.31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서울행 항공편 스케줄 안내입니다. Garuda Indonesia와의 공동 운항편도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8	매일	31-Oct-10	26-Mar-11	자카르타	21:55	서울	06:45*1
KE627	매일	31-Oct-10	26-Mar-11	서울	15:25	자카르타	20:30

#### [겨울 성수기 추가편] 변경될 수 있음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6	월,수,금	22-Nov-10	31-Dec-10	자카르타	23:45	서울	08:45*1
KE625	월,수,금	22-Nov-10	31-Dec-10	서울	17:10	자카르타	22:20

#### [덴파사르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30	일	31-Oct-10	31-Oct-10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월,일	01-Nov-10	21-Mar-11					03:35
	화수목금토	02-Nov-10	26-Mar-11					01:25
KE629	토일	31-Oct-10	26-Mar-11	서울	20:05	덴파사르	02:15*1	
	월화수목금	01-Nov-10	25-Mar-11					17:5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결제 및 배달가능)
- 정품다이아(GIA 감정서 첨부) 판매-90% 환매 보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출장 상담 및 공급 가능

갤러리 (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E-mail. 3spear@hanmail.net

##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사관 임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I,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월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誠과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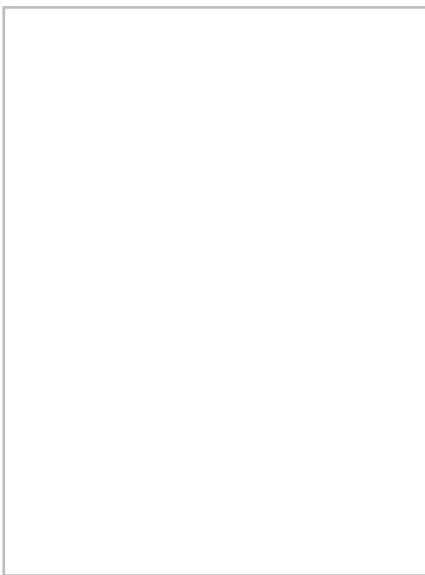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6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뿐독인다	315 7592	1033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관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하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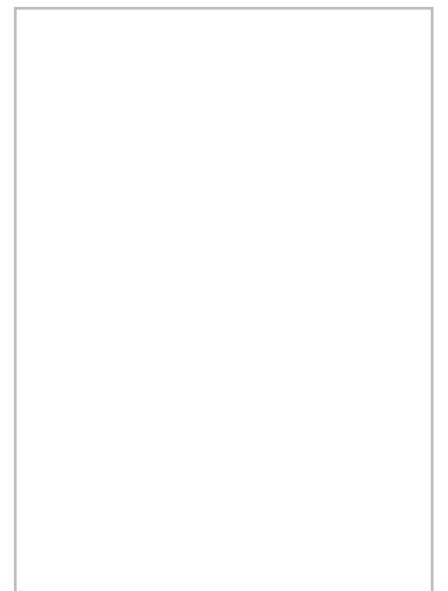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French,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Fine woo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리얼  
뉴스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컷 - 머니**

**MONEY CHANGER**

(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람)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람)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썬드라 아트스쿨(리브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769 124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MANGOCAKE	745 4229

**발리한인회 연락처 변경 안내**

회장 윤여각 (081-2384-2283)  
 수석부회장 김재호 (081-1394-566)  
 부회장 조성호 (081-1395-5783)  
 최경희 (081-2380-6288)  
 수석총무 이태우 (081-2379-39452)

**한인회 사무실 및 전화 번호**

ISTANA KUTA GALERIA BLOCK RG 11, LT.3  
 JL. PATIH JELANTIK-KUTA-BALI-INDONESIA  
 TEL: 0361)769-124 FAX: 0361)769-348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 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반둥 렌트카	0813 9400 9981
반둥 한인부동산	0858 6130 8882



뱀이 꽃으로 불리는

## 플로레스 섬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섬 본명은 누사 니빠(Nusa Nipa)이다. 섬 모양이 뱀처럼 생겼다하여 섬사람들이 지방어로 부른 것이다. 그러나 16세기경 포르투갈 무역업하는 사람들이 플로레스 라랑뚜까 지역에 도착했을 때 ‘짜보 다 플로레스’라고 외쳤다. 그때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은 섬의 이름을 포르투갈어로 꽃을 뜻하는 플로레스(Flores)라고 정했고 후에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 사용되면서 섬 주민들도 따라서 플로레스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 창살에 찢린 돌고래를 보면서-1

라마레라!

조용히 부르면 마을풍경이 내 가슴으로 파도처럼 스며든다.

라마레라! 라마레라!

주문을 외듯이 부르면 풀쩍 뛰어 오르던 돌고래 떼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라마레라! 라마레라! 라마레라!

큰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커다란 고래가 “안 잡혀서 미안해” 꼬리 흔들며 사라지던 그 아쉬웠던 순간이 떠오른다.



김성열  
수필가·방송 프리랜서  
hansoll0508@hanmail.net

라마레라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럼바따(Lembata)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조상대대로 고래잡이 하여 생계를 이어가므로 유일하게 고래와 돌고래 잡이가 허용된 곳이다. 그 마을에 들어서면 온통 고래냄새와 흔적으로 마을은 스케치되어 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고래를 빼놓으면 다른 대화꺼리가 없다.

라마레라 마을 풍경



내가 4년 전 라마레라 갔을 때 일이다. 사람들은 고래를 잡힐 수 있다는 것에 아주 대단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긴 큰 배로 작은 멸치를 잡는 일이 아니라 막대기로 큰 고래를 잡는 일이니까.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수위를 넘어 유세떠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각인될 때가 아주 많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양푼이 속에서 갖은 양념으로 콩나물 무쳐내듯이 여러 날을 그들과 함께 버물려 지낸 적 있었다. 마을을 떠나올 때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겠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와 보고 싶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는 메시지를 바다 위에 띄워두고 왔던 그런 곳이기도 하다.

살면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보다. 올해 10월 중순 나는 그렇게 가기 싫다던 라마레라에 갔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처음에 얻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전부 바다에 쏟아버리고 오히려 내 마음을 마을 앞 해변돌무더기에 묻어두고 왔다.

라마레라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는 지금 가진 나의 언어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대단했다. 어떻게 작은 목선 타고 장대 끝에 쇠갈고리 하나 달랑 묶어서 집채 같은 고래 잡을 생각을 했을까.

어제도 오늘도 고래 잡으려고 목선타고 바다로 갔다. 목선이 한 시간 쯤 가다가 바다 중간에

멈췄다. 플로레스 섬의 90% 이상은 가톨릭 신자들이므로 모두들 기도를 드렸다. 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고래를 잡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다. 기도가 마치자 한 남자가 뱃머리에 올라서더니 바다를 보고 거수경례를 했다. 그 동작으로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선원들은 그 남자에게 ‘띠깸’이라고 불렀다. 띠깸은 포수처럼 고래에게 창을 던져 고래 잡는 창살잡이를 말한다.



나는 띠깸이 왜 바다에게 경례를 하는지 궁금했다. 고래를 잡기 위해 바다 신에게 인사를 하는 걸까. 물어봤더니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햇살이 눈부셔서 햇살을 받치고 고래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띠깸은 나와 이야기 하면서 장대 끝에 갈고리를 끼웠다. 장대 끝에 걸린 갈고리에 자신의 운명도 함께 걸고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고 말했다.

“띠깸이 자격증을 거머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띠깸이 될 수는 없는 위험한 역할이다. 띠깸이 되려면 어릴 적부터 용맹스럽고 수영과 창던지기에 훈련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마을 사람들이 띠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 띠깸은 흔들리는 뱃머리에서 고래와 싸울 용기가 있어야하고 선원들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만일에 고래 잡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만이.....“

갑자기 띠깸이 “발레오(Baleo)”하며 소리쳤다. ‘발레오’는 라마레라 사람들이 ‘고래를 봤다’는 신호다. 다시 말하면 ‘심봤다’와 같은 소리다. 선원들은 순간적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일리베 일일베”라고 외치면서 노를 저었다. 목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상황이 급박해졌다.

띠깸은 들고 있던 창을 바닷물 속으로 던졌다. 창과

함께 자신도 바다로 뛰어 들었다. 띠깁이 헤엄쳐서 목선위로 올라왔다. 창을 던지면서 자신도 함께 바다로 뛰어 들었던 이유는 창 끝에 중력을 더해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창살은 물에 떠 있었다. 바닷물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자 언뜻 보이는데 돌고래 등에 창이 꽂혀 있었다. 선원들은 줄을 당겼고 뭔가 끌려오기 시작했다. 목선 앞 지점에는 빨간 물감을 풀어 놓은 듯했다. 입이 가느다랗고 빠르게 나온 회색돌고래였다. 선원은 돌고래를 배로 끌어올리면서 아직 숨을 헐떡거리는 돌고래 주둥이를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런 다음 배 위로 올려놓고 칼로 배를 마구 찢어서 생명을 완전히 끊어 냈다.

언제였던가, TV에서 봤던 돌고래 쇼가 자꾸만 죽은 돌고래 위에서 환영처럼 보였다. 라마레라 앞바다는 고래들이 이동하는 경로이다. 해마다 5월에서 10월까지가 고래들이 이동하는 철이다. 오늘 잡힌 이 돌고래도 친구들과 함께 떼지어 가다가 창을 맞은 것이다. 등지느러미가 창에 찢렸다. 좀 더 사납게 헤엄쳤더라면 상처 난 몸으로라도 도망갈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다 아주 독한 마음으로 사납게 몸부림쳤더라면 친구와 함께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 온순한 돌고래인가보다. 그래서 선물로 잡혀주었는지도 모른다.



부위와 많이 가져가고 목선 주인과 이런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공정하게 분배했다.

라마레라에서 떠나오던 날 목선을 타려고 해변에서 귀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창 던질 때 갈고리가 묶인 밧줄에 자신의 팔이 감겨서 한쪽 팔을 바다에 잃어버린 것이다. 외팔이가 된 모습으로 이제 더 이상 창을 던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다마저 떠날 수는 없다며 해변에서 잔일을 도왔다. 그의 손등은 거북이등딱지처럼 두꺼웠고 세월의 지문이 잔뜩 새겨져 있었다. 그분이야말로 라마레라가 전통적인 고래잡이 마을이라는 산증인 노장 띠깁이었다.



띠깁 집에 가면 고래 고기를 빨래처럼 널어 놓았다.

한편 내 마음은 띠깁이 아주 자랑스러워 보였다. 고래나 돌고래를 잡은 띠깁은 마치 영웅처럼 느껴졌다. 돌고래를 해변에 눕혀두고 사람들은 고기를 나눴다. 띠깁이 제일 좋은

잡은 돌고래를 내려두고 목선을 모래위로 끌어올리는 라마레라 사람들



# 민사 소송법 -4

이승민 변호사·변리사(YSM & PARTNERS) / yisngmin@centrin.net.id

(전호에서 계속)

## 32.1. 입증의 일반원칙

**32.1.1. 민사소송에서 입증은 형식적인 사실이 증거력이 있는 진실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형식적인 진실이 아닌 실질적인 진실을 찾아 유무죄를 구별하나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인 사실이 승소한다. “예”를 들면 현지인 명의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벌어지면, 투자한 외국인이 실제 주인이라는 이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을 해도 소유권에 관한한 외국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패소한다. 차명투자를 금하며 차명투자 계약서가 원인무효라고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실제 주인이라는 심증이 가더라도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외국인이 주인이 아니고 법적인 소유자인 인도네시아인 승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물적 증거나 증인을 법정에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2.1.2.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 심리는 종료된다.**

상대가 사실 무근 혹은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반대 측이 이를 인정하면 심리는 종료된다. 판사의 판단에 상대가 사실 무근 혹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판사는 상대의 사실 무근 혹은 허위 주장을 상대가 인정하면 사실로 받아드려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판단대로 판결하지 못하며 주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측의 주장이 허위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드리고 판결해야 한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 i) 무조건 인정하는 경우, ii) 침묵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은 경우, iii) 적절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상대의 주장을 막연히 반박하는 경우는 모두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2.1.3. 입증은 꼭 논리적이 아니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팔고 상품 대금 수령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발급한 상인이, 한 참 후에 상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상품 매수인에게 상품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상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상품대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품을 인계했겠느냐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지만, 증거법에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매수인이 불리하다. 상대의 입증이 비논리적일지라도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32.1.4. 다음 사실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32.1.4.1. 실정법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헌법, 법률, 비상조**

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지방조례, 주지사령, 시장령, 군수령 등 모든 실정법을 재판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당사자가 실정법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32.1.4.2. 상식이나 공식 역사적인 사실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상식이나 2004년 10월 20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32.1.4.3. 상대가 부인하지 않는 사항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사실무근 혹은 허위로 주장한 사항일지라도 상대가 부인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증이 불필요하다.

32.1.4.4. 심리 중에 발견된 사항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피고가 심리에 불참한 사실을 원고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판사가 직접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원고 혹은 피고가 인정하는 사항도 입증이 불필요하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자기 귀로 듣고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 32.1.5. 반증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피고가 내놓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소송법에 반증은 원고의 증거에 비해 증거의 질과 입증성이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 능력이다.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권리 분쟁 소송에서 토지 소유권등기증서, 경작권 등기 증서, 건축권 등기증서 혹은 사용권 등기 증서일지라도 등급이 더 낮은 Girik으로 반증하여 승소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 32.2. 입증 책임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원고는 소를 청구한 사항이 사실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에 자기의 부인 주장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에게도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의무



가 없다. 둘 다 자기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입증 의무만 있으며, 자기가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측이 패소한다.

### 32.2.1. 입증 책임의 원칙

32.2.1.1. 판사는 원고 혹은 피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입증 책임을 양측에 배정해야 한다.

32.2.1.2.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측은 입증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예”를 들면 건물목에서 기차에 치어죽은 자의 미망인이 기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의 남편이 기차에 치어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고 목격자가 있으면 원고 승소가 가능하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입증 책임 원칙도 변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피고가 환경을 해치지 않았다는 역입증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 32.2.2. 입증책임 배정의 사법적인 문제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이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을 공정하게 적용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파기 청구 사유에 해당되며 패소자는



대법원에 파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2.3. 증거

원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청구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 진술하는 사항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재판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규적용의 대상이 될 사실인정의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글자로 쓰여진 것(문서, 서류, 서한, 도면 등), 증인의 증언, 추정, 고백, 인정 및 선서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정법에 규정된 증거 이외에 물체, 사진, 동영상, 팩시밀, 이메일 등도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증거는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증거가 1가지뿐인 경우에는 증거의 효력이 없다.

#### 32.3.1. 글자로 쓰여진 증거

생각이나 의미를 글자로 기록한 증거, 즉, Surat은 Akta와 비Akta로 구분된다. Akta란 처음부터 증거의 목적으로 사건, 권리, 계약 등을 글자로 쓰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비Akta는 그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일상의 편지, 기차표 등이다. Akta는 다시 Akta Otentik(공정증서)와 Akta di Bawah Tangan(일반증서)으로 구분된다. 공정증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공직자에 의해 혹은 공직자 면전에서 법정 형식으로 해당 공직자가 행한 사항 혹은 직접 면전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을 기록한 관련 당사자

에게 완전한 증거가 되는 증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직자란 공증인, 법원사무관, 집달리, 호적등록관, 판사 등을 의미한다. 일반증서란 공직자의 도움 없이 관계 당사자가 증거의 목적으로 작성한 증서를 의미한다.

#### 32.3.2. Photo copy의 증거 능력

판례에 의하면 Photo copy는 증거 능력이 없으나 Photo copy에 공증인이 “이 Photo copy는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한다”는 공증이 되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2.3.3. 증인의 증언

사건을 직접 육안으로 보거나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들은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언은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구두로 증언한 증언만이 증거 능력이 있으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서면으로 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소송 당사자, 가족,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근친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증언을 면할 수 있다. 증인은 법정 출두의 의무, 종교에 따라 선서의 의무, 증언의 의무가 있다.

#### 32.3.4. 추정

추정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이거나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추정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 과 법규에 의한 추정이 있으며 증거로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다.

#### 32.3.5. 인정

법정에서 사건 혹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면 완전한 증거가 되며 상대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심리를 종료한다. 법정에서 인정은 취소가 불가하다.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법정 밖에서의 인정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취소 여부는 당사자에 달려 있다.

#### 32.3.6. 현장 검증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부동산, 증장비, 설비 등 증거를 조사해달라는 소송 당사자의 요청 혹은 재판장의 직권으로 재판부는 법원 건물 밖에 있는 증거가 있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장 검증 경비는 통상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며 현장 검증 결과를 증거로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 있다.



32.3.7. 전문가 증인의 증언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목적으로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여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기술관련 사건, 국제상거래관련 사건, 보험관련 사건, 지적 재산권관련 사건 등 특수 분야의 사건을 심리에 해당 분야에 대한 재판부의 제한된 지식만으로는 충분한 심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 당사자의 요청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으며 통상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3. 증인의 의무

33.1. 법정 출두 의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법원으로부터 법정 출두명령을 받으면 증인에게 출두 의무가 발생한다. 1차 출두명령을 어기면 출두명령서 송달비를 배상해야하며, 2차 출두명령을 어기면 송달비와 소송 당사자(원고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3차 출두 명령은 경찰을 통하여 강제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귀찮지만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서 정한 일자에 맞춰 법정에서 출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1. 선서의 의무

증언을 하기 전에 재판부 앞에서 증인의 종교에 따라 선서한다. 이슬람 신자는 코란을 두고, 크리스천은 성경을 두고, 불교신자는 부처상을 두고 재판장을 향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증인이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에게 서약 후 증언을 취한다.

33.2. 증인의 의무

법정에 출두하여 선서를 한 증인은 증인의 의무가 있다. 증인이 선서 후 증언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증인을 구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치비는 소송 당사자 부담이 된다.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당사자와 재판부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의 질문의 내용이 사건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질문을 제지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를 경유하여 간접 질문을 허용한다.

34. 재판부는 소송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은 증인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거의 전부 원고 혹은 피고가 요청한 증인들이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생각할 때 사건 조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5. 증언의 증거 능력

서증(글자로 쓰여진 증거물)은 강제 증거 능력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서증을 의무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여야 하나 증인의 증언은 재판부에게 강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증언을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

36. 최종 변론

입증 절차가 종료되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 청구, 반박, 변론, 입증을 총망라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최종 변론서를 동시에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가 각각 제출한 최종 변론서를 검토하고, 실정법, 관습법, 판례 및 법학 이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법의 확실성이 있고 소송당사자 및 사회에 유익한 판결문을 내린다.

(다음 호에 계속)





1. The Plaza Office Tower 로비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나서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된다.
2. 30층에 위치한 영사과,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종전 보다 넓혔다.
3. 영사과 복도 맞은 편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
4. 2013년 완공될 예정인 대사관 신청사 모습.

##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종전과 동일)

## 이용 안내

### ○ 일반절차

- 1층 로비 원편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교환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발행 신분증인 KITAS 또는 KITAP
  - 인도네시아 경찰청 발행 외국인 등록 관련 신고증 (SKLD)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SIM)
  - 대한민국 여권
  -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설치된 출입문 센서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용 대사관(30층) 도착
  - 대사관 용무를 마친 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과 신분증 교환

### ○ 예외절차

- <신분증이 여권만 있고, 영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여권을 복사하고 출입증 발급
- <여권도 없고, 신분증이 전혀 없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대사관 영사과에 통화, 영사과 직원이 내려와서 30층으로 안내

### ○ 기타사항

-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 Rp.150,000을 변상해야 하므로 대사관 용무를 마친 후 출입증을 반드시 1층 안내데스크에 반납 요망.



##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전 안내

주소:

The Plaza Office Tower, Unit E 20th Floor(20층)  
Jl. MH. Thamrin No. 28-30, Jakarta 10350

전화: 021) 2992-1900, 2992-2100, 2992-2101

팩스: 021) 2992-2102(KOICA), 2992-2103(KJE)

### 이용절차:

- 건물로 들어오신 후 안내원에게 방문기관 및 층수 (KOICA, 20층)를 이야기하고 신분증을 맡긴후 출입증을 받습니다.
- 총 3개의 건물중 LOW 라고 적혀있는 건물로 향하여 출입증을 출입 센서에 대신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 백화점과 The plaza building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테러 및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한 인도네시아 생활을...

〈자료제공: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인도네시아 테러

9.11 폭탄테러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와 자카르타에서 발행한 몇 차례의 폭탄 테러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고, 이곳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교민이 3만5천명 정도나 거주하고 있고, 발리는 국제적인 휴양도시로서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13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신변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발생한 발리의 나이트클럽과 짐바란 해변 음식점과 상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호주 등 서양인을 목표로 공격한 것이지만, 총 222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테러 사건이었다. 두 차례의 발리 폭탄테러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자카르타 시내 매리어트호텔 앞에서 차량폭탄이 폭발, 12명의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했으며, 2004년에는 자카르타 주재 호주대사관 밖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었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던 폭탄테러가 2009년 7월 17일 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번에도 서양인을 주 타겟으로 삼은 테러로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 매리어트호텔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9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1명을 포함 5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폭탄테러 사건이 이슬람 세력과 관련이 있는 알카에다 조직이나 제마 이슬라미아 조직의 소행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폭탄테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인도네시아 테러 발생 일지

**2000년 9월 1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주식시장 건물 차고에서 차량폭탄이 터져 10명이 숨지고 16명 부상

**2000년 12월 24일** 인니 전역의 교회 11곳과 성직자들에 성탄절 선물을 가장한 폭발물이 배달돼 19명이 숨지고 100여명 부상

**2002년 10월 12일** 휴양지 발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한 나이트클럽 2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202명이 사망하고 수백명 부상

**2003년 8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매리어트 호텔 앞에서 차량폭탄이 폭발, 12명이 사망하고 149명 부상

**2004년 9월 9일** 자카르타의 호주 대사관 밖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 부상

**2005년 5월 28일** 중부 술라웨시주(州) 텐테나 마을의 시장에서 제마 이슬라미아의 전형적인 수법이 사용된 동시 폭발로 22명이 사망. 당시 제마 이슬라미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성전(聖戰)'을 선동

**2005년 10월 1일** 발리 해변가와 상가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20명 사망

**2009년 7월 17일** 자카르타의 리츠 칼튼, 매리어트 등 호텔에서 폭탄이 터져 9명이 사망하고 41명 부상

### 테러 발생시 대처 요령

#### 1)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 (좌측통행)하여 폭발물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 건물높이 이상, 폭발: 500m이상) 밖으로 대피한다. 대피 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한다.
- 대피 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을 피하는데 유의한다.



#### 2) 생물테러 의심 물질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실내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에어컨·환기시설 등을 모두 끈다.



- 의심 물질이 날릴 염려가 있을 경우 옷,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둔다.
-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장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도록 한다.
-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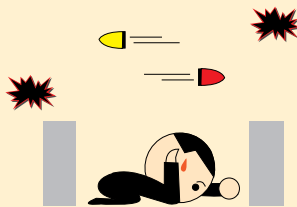
3) 폭발현장에서는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싼다.
-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한다.
- 강당, 로비 등 기둥 간격이 넓은 곳은 붕괴위험이 높으므로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 유리·간판·전등 등의 비산·낙하물이 없을 만한 곳이나 책상 등의 아래에 피신한다.
- 휴대전화를 켜 놓아 붕괴·매몰시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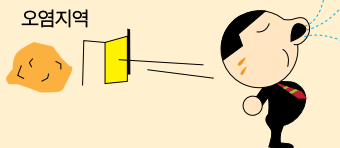
4) 총격 현장에서는

- 즉시 바닥에 엎드리거나 자세를 낮추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 경찰·경비원의 대응사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경비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화학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즉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 오염지역 내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옆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 오염된 실내(건물)에서는 신속히 빠져 나온다.
- 오염지역을 벗어난 경우, 맑은 공기를 찾아 호흡하거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한다.
-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 있던 사람은 가능한 오염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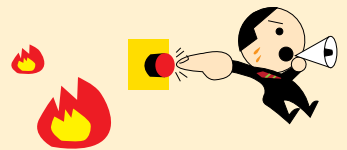
6) 방사능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방독면을 쓰거나 코와 입을 손수건 또는 휴지로 가리고 주변사람들과 함께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한 곳에서는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 환풍기 등을 모두 끈다.
-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옷을 벗고 온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7)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 경보기를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히 알린다.
- 주변에 있는 손전등을 찾아 들도록 한다.
- 손수건 등을 물에 적서 코와 입을 가린다.
- 화염·연기가 적은 피난통로를 선택하여 대피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문을 열 때에는 손으로 짚어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대피한다.
- 피난통로의 한쪽을 이용(좌측통행)하여 구조·소방대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할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벽 가까이로 질서 있게 대피한다.
- 귀중품 등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대피한다.



8) 매몰·붕괴된 경우에는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한다.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 한다.
- 규칙적으로 벽, 파이프 등을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기의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한다.
-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유지에 힘쓴다.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기다린다.



##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2010년 10월 25일, 수마트라 서부해안 면따와이 제도에서 진도 7.7의 강진에 이어 쓰나미가 발생해 448명 이상이 사망하고 56명이 실종, 1만5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6년 5월 27일, 족자카르타주에서는 진도 6.3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6천명이 사망하고 1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족자 거주 교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난 10년 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아체 쓰나미를 들 수 있다. 2004년 12월에 인도양과 접한 안다만해에서 리미터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어진 쓰나미가 인도양 연안 12개국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아체주에서만 17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아시아와 호주를 받치는 두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불의 고리' (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활발한 지각활동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게 된 축복받은 땅이면서 동시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고단한 땅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매일 수 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한 두 차례는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민들은 지진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피해 일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서 발생한 규모 9.1 강진으로 쓰나미 발생. 인도네시아인 16만8천명을 비롯해 인도양 국가에서 22만명 사망

2005년 3월 28일 수마트라섬 인근 니아스섬에 규모 8.6 강진이 발생해 최소 900명 사망

2006년 5월 27일 족자카르타주에서 규모 6.3 강진이 발생해 6천명 사망하고 이재민 150여만명 발생

2006년 7월 17일 해저에서 발생해 자바섬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쓰나미 발생. 최소 596명 사망하고 9천500명 이상 부상했으며 이재민 약 7만4천명 발생

2007년 3월 6일 수마트라섬에 규모 6.3 강진 발생. 건물이 붕괴해 최소 70명 사망

2009년 9월 2일 자바섬에서 규모 7.0 강진 발생. 123명 사망하고 산사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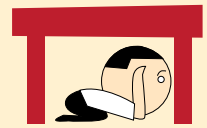
2009년 9월 30일 수마트라섬에서 규모 7.6 강진 발생. 1천 100명 이상 사망

2010년 10월 26일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진도 7.7 강진 발생. 448명 이상이 사망, 56명 실종, 1만5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 지진 발생시 장소별 대처 요령

### ● 집안에 있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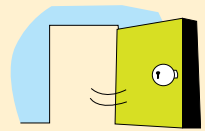
- 크게 흔들릴 때의 진동시간은 1~2분이므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머리부분의 보호에 가장 신경쓴다.
- 불이 나면 침착하게 불을 끄고 사태를 살핀 뒤 안전조치를 취한다.
- 석유, 가스 등을 사용하는 열기구와 전기 등 불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중간밸브를 잠그거나 스위치를 끈다.
- 옷에 불이 붙으면 담요로 몸을 감싸서 끄고 혼자일 경우 누워 뒹굴어서 끈다.
- 연기로 인한 질식에 유의한다.
- 놀라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
- 놀라서 허둥지둥 다니면 뜻밖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 화장실, 목욕탕은 면적이 좁은데 비하여 벽면이 많아서 비교적 안전하다.
- 아파트 등 높은 건물에서는 비상대피 방법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곳을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 문이 틀어져 열지 못하게 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 만약 급박할 때는 위층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테이블 밑에 몸을 보호



사용 중인 불을 끄자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 변화가나 빌딩가에 있을 때

변화가, 빌딩가, 사무실 등에서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하다. 우선 갖고 있는 소지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까운 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낙하물 주의

### ● 백화점, 극장, 지하, 운동장에 있을 때

- 혼란은 일으키지도 말고 혼란에 휩쓸리지도 않는다.
- 백화점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혼란이다.
-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는 안내 담당직원이 있어 비상시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특히, 출구나 계단으로 몰려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지하는 지진 발생시에 비교적 안전하나 정전 등의 불안에 의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전이 되어도 곧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운동장에서는 놀라서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가게 되는데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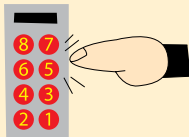
침착하게 행동

## ● 사무실에 있을때

-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 몸의 안전을 도모한다. 넘어지는 선반이나 책장은 위험하다.
- 사무실에서는 무너지는 선반이나 책장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반이나 책장 등은 미리 벽에 고정시켜 둔다.
- 전열기나 전기기구 등, 화재 원인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한다.
- 비상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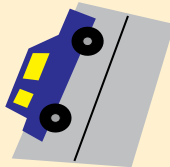
- 안전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 갇혀진 상태일지라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 만일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가장 가까운 층에 대피

## ● 자동차를 운전 하고 있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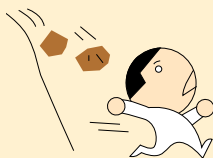
- 자동차는 도로의 왼쪽에 세우고 사태를 파악한다. 운행은 혼란의 원인이 된다.
-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왼쪽에 정차한다.
- 그 상태로 30분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두고,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도로 좌측에 정차

## ● 등산이나 여행 중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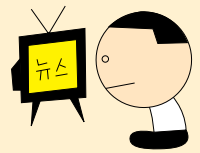
- 산사태, 절벽의 붕괴, 해일에 주의한다.
- 산사태, 절벽의 붕괴, 해일 우려 지역으로부터 신속히 대피한다.
- 산 근처나 급경사지에서 큰지진을 느끼면 곧바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산사태가 나거나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 해안에는 해일이 닥칠 염려가 있다.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내방송이나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해일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위험지역 신속 대피

## ● 유연비어에 속지 맙시다.

- TV, 라디오나 행정기관의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 대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떠도는 헛소문이나 유연비어에 휩쓸리게 되면, 도리어 혼란을 더하게 할 뿐이다.
-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정보만 믿고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이나 출처불명의 정보에 휩쓸려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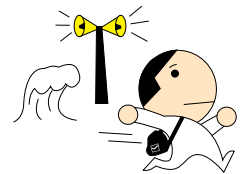


유연비어를 믿지 말자

# 쓰나미 발생시 대처 요령

## ● 해일경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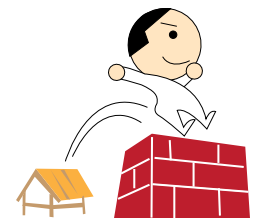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한다.
- 지진해일은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약 30분에서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고 이러한 상태가 약 3~4시간 반복된 후 점차 약화되면서 하루 정도 지속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 해안에서 진동을 느꼈을 경우나 지진해일 경보를 들었을 경우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 경보 시 수영, 보트놀이, 낚시, 야영 등을 즉시 멈추고 해변가나 주택 및 지하실에서 대피한다.
- 지진해일시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귀항하지 말고 대기하며, 항구에 있는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경보 발령시 신속 대피

## ● 해일경보 후 대피 못했을 시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 목조 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하다.



목조 건물에서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이동

## 인도네시아 화산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머라빠 화산은 2010년 10월 26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폭발과 용암, 화산재를 뿜어내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6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머라피 화산은 1930년 폭발해 1300명이 숨졌고 94년과 2006년에도 폭발해 각각 69명과 2명이 사망한바 있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번 폭발을 1870년대 이후 최악의 폭발이라고 전했다.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128개의 화산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A급 화산 78곳, 1600년 이후 분출하지 않은 B급 화산 30곳, 한번도 분출하지 않은 C급 화산이 20곳이다.

A급 화산은 수마트라에 13곳, 자바 19곳, 발리.누사 가라에 23곳, 술라웨시에 11곳, 말루쿠에 12곳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산재해 있다.

지진학자들은 앞으로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환경파괴로 재해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일지

1815년 4월 10일 숨바와 섬의 땀보라 화산 폭발, 117,000명 사망

1883년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끄라까따우 화산 폭발, 36,000명 사망(사망자의 대부분이 화산 폭발시 발생한 쓰나미 피해자이다)

1963년 발리섬의 아궁 화산 폭발, 1,148명 사망

1920년 동부자바 말랑지역 근처의 끌루드 화산 폭발, 5,000명 사망. 1951년, 1966년, 1990년에도 폭발해 총 250여명 사망

1982년 8월 16일 서부자바의 갈룽궁 화산 폭발, 4,000명 이상 사망

1994년 11월 22일 족자의 머라빠 화산 폭발, 69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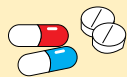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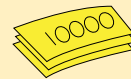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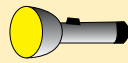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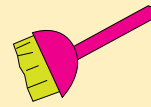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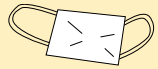
2006년 4월 1일 족자의 머라빠 화산 폭발, 2명 사망

2010년 10월 25일 족자의 머라빠 화산 폭발, 200명 이상 사망, 36만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 지진 폭발시 대처 요령

### ● 화산재가 내리기 전 필수 준비물

- 먼지마스크
- 선글라스(눈을 모두 가리는 고글류의 선글라스)
- 최소 72리터 정도 마실 수 있는 물
- 최소 72시간 생존을 위한 비상 식품
- 충분한 비닐봉지 류  
(가전제품의 화산재 노출을 막기 위함)
- 라디오, 건전지
- 비상 전등
- 담요, 따뜻한 옷
- 비상약
- 청소도구
- 비상금(현금 자동인출기는 화산재가 내리면 사용하지 못함)



### ● 화산재 주의보 발효 시 행동지침

- 문과 창문을 닫는다.
- 수건이나 헝겊으로 문의 틈새를 막고, 창문 틈새는 테이프로 봉한다.
- 가전제품은 화산재가 주의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비닐로 봉한다.
-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환자는 외출을 절대 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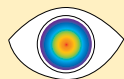


### ● 화산재가 내릴 때 주의사항

- 갑자기 어두워지고 폭풍을 수반 할 수도 있다.
- 바깥 외출을 하지 않는다.
- 외출 시 화산재가 내린다면 피할 곳을 찾는다.
- 마스크나 손수건을 이용해서 코와 입을 가린다.
- 화산재가 내리기 전 주의보가 내렸다면 일찍 퇴근한다.
- 콘택트렌즈는 사용하지 않는다.



NO!



## 인도네시아 폭우·홍수

인도네시아는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순서로 피해가 크다. 최근엔 무분별한 산림 벌목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이 겹쳐 건기와 우기를 가리지 않고 잦은 폭우가 내려 연중 수많은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인 자카르타도 도심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치수관리의 미비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는가 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속출해 최악의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폭우가 있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폭우·홍수시 대처 요령

### ● 폭우·홍수시 장소별 대처요령

#### ● 집에서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긴급사태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확인하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간다.

#### ● 도로에서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하고 큰 도로를 이용하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사면 도로의 진입을 하지 않는다.

#### ● 골프장에서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나무 밑을 피하여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 산에서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권고에 따르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 강이나 계곡에서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고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건너지 않는다. 야영 중에 강물이 넘칠 때에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무리하게 건져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모만이라도 신속히 대피한다.



### ● 공사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떠나려 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위상승에 대비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홍수시 단계별 대처요령

####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가옥 및 공장 내의 두꺼비집과 메인 밸브를 완전히 차단 한다.
- 전자 제품의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
- 자동차의 연료를 확인하고 가득 채워 둔다.
- 상수도 공급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 둔다.



#### ● 홍수 중

-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지대로 신속하게 피한다.
- 해당지역의 TV와 라디오를 주의 깊게 청취 한다.
-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하천을 건너지 않는다.
- 15cm 깊이의 급류에도 휩쓸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만 한다면 물의 흐름이 없는 곳으로 이동한다.
- 홍수로 침수된 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차량으로 물이 몰려오면 차를 포기하고 고지대로 대피한다.

#### ● 홍수 후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을 조심한다. 이 지역의 도로는 지반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의 하중에 의하여 붕괴의 위험이 존재한다.
- 전선이 떨어진 지역을 조심한다.
- 홍수로 밀려온 물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씻는다.



글: 이병수

지난 호 말미에 약속한 바와 같이 필자가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 계약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이어서 해외동포로서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생명보험을 어떻게 설계하여 가입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시죠.

노파심의 발로이지만, 필자의 보험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험전문가임을 자부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생소한 생명보험을 저와 가족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구성하기 위하여 고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하나의 지침 정도로 보여드리기 위함일 뿐, 최선의 선택도 교과서적인 정답도 아님을 우선 이해시켜드리고자 합니다.

## 필자(계약자)의 보험 포트폴리오 (납입방법 - 월납)

### 1. 무배당 수호천사2002 종신보험

- 주피보험자: 000(본인)
- 보험기간: 종신 / 보험료납입기간: 65세까지
-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10,000만원 / 재해치료특약 1,000만원 / 무배당소득보상 1,000만원 / 종신입원 1,000만원 / 수술보장 1,000만원 / 암보장특약 2,000만원 / 재해사망특약 10,000만원 / 의료보장특약 1,000만원 / 자녀보장특약 1,000만원

### 2. 무배당 수호천사2002 종신보험

- 주피보험자: 000(배우자)
- 보험기간: 종신 / 보험료납입기간: 65세까지
-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7,000만원 / 재해치료특약 1,000만원 / 무배당소득보상 1,000만원 / 종신입원 1,000만원 / 수술보장 1,000만원 / 암보장특약 2,000만원 / 재해사망특약 10,000만원 / 의료보장특약 1,000만원 / 자녀보장특약 1,000만원



### 3. 무배당 NYL 종신보험

- 주피보험자: 000(배우자)
- 보험기간: 종신 / 보험료납입기간: 만56세까지(15년납)
- 보장내용: 종신보험 3,000만원 / 재해사망특약 6,000만원 / 재해상해특약 3,000만원 / 입원특약 3,000만원 / 메디컬케어특약 2,000만원 / NYL 성인건강특약 1,000만원 / 암치료특약 3,000만원

### 4. 무배당 수호천사 하나로종합보장보험

- 주피보험자: 000(본인)
- 보험기간: 80세까지 / 보험료납입기간: 80세까지
- 보장내용: 재해사망보험금 15,000만원/10,0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율 / 중대화상치료비 2,000만원 / 중대재해수술비 300만원(1회당) / 5대질환치료비 2,000만원 / 중대질환수술비 1,000만원(최초1회) / 성인질환수술비 300만원(1회당) / 입원비 7만원 ~1만원(3일초과 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 건강관리자금 100만원(생존시 60,65,70,75,80세 계약해당일)

### 5. 무배당 수호천사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 주피보험자: 000(자녀-딸)
- 보험기간: 80세까지 / 보험료납입기간: 60세까지
- 보장내용: 프리스타일통합CI-표준체 9,000만원 / 재해사망특약 10,000만원 / 재해상해특약2형 10,000만원 / 소득1보상특약2형 1,000만원 / 재해치료특약3 1,000만원 / 의료보장특약 1,000만원 / 질병보장특약 500만원 / 고액치료비암특약 2,000만원 / 종신입원특약 4,500만원 / 종신수술보장특약2형 1,500만원

### 6. 무배당 사랑보장보험

- 주피보험자: 000(자녀-딸)
- 보험기간: 27세까지 /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
- 보장내용: 주계약 2,000만원 / 암보장특약 1,000만원 / 입원특약 3,000만원 / 재해입원특약 2,000만원 / 재해치료특약 1,000만원

### 7. 무배당 사랑보장보험

- 주피보험자: 000(자녀-아들)
- 보험기간: 27세까지 /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
- 보장내용: 주계약 2,000만원 / 암보장특약 1,000만원 / 입원특약 3,000만원 / 재해입원특약 2,000만원 / 재해치료특약 1,000만원

### 8. 비너스암치료보험

- 주피보험자: 000(배우자)
- 보험기간: 60세까지 /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납입종료)
- 보장내용: 재해사망 2,000만원 / 일반사망 2,000만원(일반암) / 3,000만원(특정암) / 치료비(1회당) 2,000만원(특정암) / 1,000만원(일반암) / 수술비(1회당) 600만원(특정암) / 300만원(일반암) / 입원비(1일당) 11만원(특정암) / 6만원(일반암) / 1만원(일반재해)

### 9. NYL변액연금보험

- 주피보험자: 000(본인)
- 보험기간: 10년 / 보험료납입기간: 10년납
-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2,000만원 / 보험기간(10년) 종료후 만 60세부터 80세까지 월정연금 지급
- 투자유형: 안정형(채권투자 50% + 주식투자 50%)

필자가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계약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 피보험자별로 본인 2구좌, 배우자 3구좌, 자녀 3구좌(딸 2구좌 및 아들 1구좌)로 구성되었습니다.

두울! 보험상품별로는 종신보험 3구좌, 정기보험 2구좌, 변액연금보험 1구좌, CI 보험 1구좌, 통합보험 1구좌, 암보험 1구좌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엣! 투자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8구좌는 모두 사망보험금보다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및 소득상실 보전을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넷! 정기보험 2구좌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인 27세까지 각종 재해 및 질병에 대비하고 보험기간 종료 시 환급금을 독립자금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다섯! 변액연금보험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하여 60세 이후 노후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손해보험은 물론, 특히 생명보험은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T기술과 접목된 통계분석능력의 향상에 힘입어 매우 세분화되고 발전된 보험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보험에 거의 문외한인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보험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아서 해줘’ 하는 식으로 일임하고 맡게 되지요. 비유를 들자면, 음식종류가 너무 많은 식당에 가면 오히려 마땅히 먹을 만한 메뉴를 고르기가 어렵고, 생소한 일식집에 갈라치면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할지 몰라 일행 중에 평소 일식에 정통(?)한 사람에게 주문을 일임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독자여러분이 생명보험에 문외한이라는 가정 하에, 세분화된 개별 보험상품 구성은 전문가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른다 치고, 현대의 생명보험이 큰 줄기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지내야 하겠지요?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상품의 구분도 각 상품의 담보내용 구성에 따라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품 명칭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들

###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 보험상품입니다. 즉,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계약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맞춤설계도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어 종신보험 하나만으로도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지요.

### 정기보험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과 달리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사망 보험상품입니다.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신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1/2에서 1/3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가장 재래식 보험상품이라고 할까요.

### 암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발병 시 진단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요양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질병 보험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상품의 판매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CI 보험

보험가입자가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상품입니다. 앞서 말한 중대한 질병 외에 심장, 간장, 폐, 신장, 췌장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수술, 심각한 화상 등도 보장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신형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지요.

**변액보험**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투자 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질 수도, 호전될 경우도 있지요.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안전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며 공평한 투자손익의 배분을 위해 특별계정으로 일반상품과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2001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변액유니버설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보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입이나 보험금 증도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상품입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붙여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운용 리스크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변액보험과 구별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반 보험상품들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지만 유니버설보험은 계약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더라도 일정기간(보통 2년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보험**

하나의 상품으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을 높인 보험상품입니다.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퇴직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잘 알고 계신 상품이라 생각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동포로서의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생명보험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과제로 하여 제 나름대로 맞춤형 설계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를 기대해주세요!



#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구본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를 거치면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금융시장 개혁과 경기부

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기회복과 연계된 출구전략의 모색, 재정건정성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5차 서울회의는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는 자리였으며,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무역자유화, 금융기구·규제개혁, 에너지, 반부패 등을 비롯하여 세계경제 질서의 흐름을 균형성장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11월 12일 막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이슈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컨센서스'를 채택하였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미국이 6천억달러에 달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를 발표하였고, 브라질 등 일부국가의 자본이동 통제 및 보호무역주의 경향 등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나, 앞으로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 서울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G20체제가 단기적인 위기 극복 매커니즘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거버넌스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경상수지 등 경제불안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제안했던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서울선언에 포함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발 이념을 반영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성장과 지구적 차원의 파트너십 등 개도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 '서울 컨센서스'를 도출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 경제불균형과 환율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냈고, 이는 우리의 국격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보장하는 최적의 규범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을 전세계에 알렸다. 단순히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이해를 반영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신흥 리더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한국이 36년간 일본에 의한 식민지 수탈과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G20회의를 주관한 것을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6.25와 베트남전에서 흘린 '피'와 중동의 사막에 뿌린 '땀',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유보했던 '인내'로 이룩한 성과이다.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

를 하는 나라로 변신에 성공한 나라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로 기록되었다. 그 동안 우리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이제 세계인들이 격찬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격상되었으며, 이제 전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내세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 일행 등 손님 을 맞이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발전상을 세계에 유감없이 소개하였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서울의 발전상을 취재하는데 열을 올렸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도 활기찬 서울의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우리의 문화와 기술력과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게 된 것도 부수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국제적 위상에 있어서도 세계 경제의 '규칙준수자'에서 '규칙제정자'로 격상되었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물들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코리아 프리미엄'이 지속되어 한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 / 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NDO

11월23일 예상치도 못했던 조국 소식에 많이들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웃고 상대방도 자신도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웃는 얼굴만 봐도 저절로 따라 웃게 될 정도로 웃음은 전염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하하’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웃으면 옆으로 더 강하게 전염된다고 하며, 반대로 성대가 떨리지 않고 숨소리가 섞인 웃음은 전염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긍정적인 느낌 정도를 점수로 매기면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박장대소하는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또 입을 다물고 짧게 짧게 웃는 소리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박장대소하는 소리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 여러분 주의 분들도 웃음소리 따라 무의식 중에 행복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 시작하는 일일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미국으로 입양된 후 임신 후 애인에게 버려져.. 혼자 인 어머니 슬하지만 훌륭하게 자란 동해 하지만 마음속에 누구도 이해 못할 깊은 상처를 갖고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 그토록 원망하던 한국 땅을 밟았지만 또 다시 애인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딛고 씩씩하게 새로운 사랑과 인생을 찾아 마음이 상처를 치유하는 동해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치지 말고 힘내라는 의미로 웃어라 동해야 일일 드라마 제목을 웃음을 잃지 말고 항상 힘들지라도 웃으라는 뜻의 “Tetaplah Tersenyum”으로 결정 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아나운서가 되고 새로운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맞게 된 세와 아무것도 모르는 피디가 칼 레이커를 섭외 하라고 하자 망설이지만 칼에게 부탁한다. 단 칼에 거절당한 세와를 안쓰럽게 여긴 엄마(안나)가 대신 출연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칼은 극도로 분노하며 생방송 직전 막무가내로 안나를 끌고 나온다.



## 웃어라 동해야 Tetaplah Tersenyum



Kau membujuk ibuku di belakangku untuk muncul di TV!

제발 이라며 부탁하는 프로그램 담당 피디에게  
Kau membujuk ibuku di belakangku untuk muncul di TV  
나 몰래 우리엄마 꼬셔서 방송에 내보내고...



Aku janji untuk tampil menggantikanmu.

Aku janji untuk **tampil** menggantikanmu.  
내가 너 대신 나가겠다고 했어

Bujuk은 감언이설이나 확신을 주는 언변으로 타인을 설득하거나 부추길 때 사용 합니다. 유사어로는 Rayu, Goda가 있으나 의미하는 뜻이 다릅니다.

### **Bujuk**(Mengambil hati)

- 마음을 취하는 것, 갖는 것

Ayan sedang membujuk anaknya supaya berpuasa bersama.

Susahnya untuk membujuk nenek untuk mengungsi.

### **Rayu**(Menyenangkan/menghibur hati)

-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기쁘게 하며 유혹 하는 것

Penyanyi itu punya suara merdu **merayu** pendengarnya. 그 가수는 청중을 감동시키는(홀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Berikut cara yang dapat digunakan untuk **merayu** gadis yang baru Anda kenal.

다음은 처음 알게 된 소녀의 마음(마음을 기쁘게 하여 꾀하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Goda**(Mengganggu, mengajak supaya berbuat dosa atau berbuat kejahatan)

-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도록 꾀이거나 괴롭힘을 나타냄.

Dalam beberapa hari ini sahabatku **menggodai** pacarku. 여 몇일간 나의 절친한 친구는 내 애인을 꼬셨다(유혹 했다)

Orang-orang lemas hati begitu sering mengalah atau tunduk atas **godaan** Setan

심약한 사람은 종종 사탄의 공격(유혹)에 무너지거나 복종한다.

### **Muncul**과 **Tampil**

두 단어 모두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방송에 출현하거나 나가는 것 외에도 Muncul은 두문불출 하던 어떠한 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얼굴을 비쳤을 때, Tampil 한발짝 앞으로 나오거나, Muncul과 같이 모습을 내보일 때 사용 됩니다.

### **Muncul** (Menampakan diri, timbul)

- 갑자기 없던 것이 나타남

Binatang itu **muncul** dari permukaan air. 저 동물은 해수면에서 나타났다

### **Tampil** (Melangkah maju, muncul)

Ia **tampil** ke depan untuk menerima hadiah sebagai juara kelas.

우등상을 수상받기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왔다.

Saksi itu **tampil** lagi di depan hakim.

증인은 다시 판사 앞에 섰다.

#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 컴퓨터 사용 증후군



김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오늘은 컴퓨터 이야기 보다 컴퓨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즉,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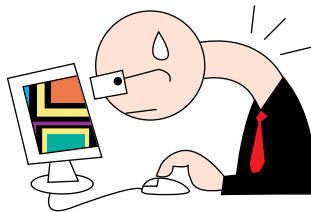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강한 컴퓨터 생활이 과연 컴퓨터만 건강하면 되나 하는 생각에 컴퓨터 질병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이름이나 증상들이 참으로 신기한 게 많습니다.

필자도 오늘 자료를 정리하며 보니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해서 참으로 우울(^)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조심해야겠지요.

자 그럼 컴퓨터 증후군 무엇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 거북목 증후군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 거북목 증후군은 대체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종사자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노트북(lap top)컴퓨터 사용자나 공항 등 이동 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많이 발생되는데, 장시간 이 자세가 유지되면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뒷목과 어깨, 머리에 통증과 피로감, 그리고 자세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진단법

정상적으로 선 후, 귀의 중간에서부터 아래로 가상 선을 그렸을 때 어깨 중간이 같은 수직선상에 있어야 올바른 자세인데, 만약 그 선이 중간보다 앞으로 2.5cm 이상 떨어지면 이미 거북목 증후군으로 진행 중이라는 신호이며, 그 차이가 5cm 이상이면 거북목이 이미 와 있다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 예방

첫 번째, 자신의 앉은키보다 책상이 낮거나 높을 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평소 사용하는 의자와 책상을 본인이 허리를 펴고 앉았을 때 어깨를 올리지 않고, 편안히 내린 자세로 자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모니터는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은 자세의 눈높이 정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니터를 쳐다보기가 보다 쉬워지며, 목 뒷부분을 누르던 스트레스도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5분에서 10 분 정도 서 있거나 걷는 것도 좋고, 또 목을 수시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스스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등을 구부린 자세는 머리와 목을 더 앞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등과 목을 구부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기 쉬운데 똑바로 앉는 자세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부단히 노력하여 적응해야만 목 상태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은 전체 인구의 약 1%, 반복적으로 수부 및 수근관절부를 사용하는 직업 종사자들의 약 5%에서 발생하는 흔한 압박성 신경장애입니다.



#### 원인

손과 손목의 과도한 사용으로 손목을 굽힐 때 공간이 좁아지고, 압박을 받으면서 손목 터널 내 신경이 자극을 받아 발생합니다. 손으로 해야 하는 가사노동이 많은 40~50대 주부나 손 사용이 많은 직군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이 급증하면서 직장인과 일반인에서도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증상

대개 서서히 나타나는데,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에 통증과 이상감각을 일으키며, 또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 자다가 저려서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픈 정도지만, 심해지면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되며, 방치하면 신경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저린 감이나 통증은 없어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엄지손가락 쪽의 손바닥 근육이 위축돼 원숭이 손처럼 손바닥이 편평하게 됩니다.

손목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손목을 중립 상태 내지는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키보드

사용이 많은 사람은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나 손목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방

손목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손목을 사용하는 중간 중간에 손목 스트레칭 운동을 하거나 힘을 빼고 손을 가볍게 흔들어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근막통 증후군

흔히 ‘담이 들었다’고 말하는 근막통 증후군은 인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안이 단단하게 뭉쳐지면서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근육을 누르면 통증을 느끼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만성이 되면 온몸 곳곳에 근육통이 생기거나 빨리 피로해지고, 불면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예방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목을 앞뒤, 좌우로 돌려주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목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목의 자세를 바로잡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목과 어깨 사이에 끼고, 통화하거나 어깨를 움츠리고 장시간 사무를 보는 습관, 근육을 압박하는 무거운 배낭끈, 조이는 속옷, 목을 조이는 옷이나 넥타이도 좋지 않습니다.

### VDT 증후군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VDT 증후군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계속 보면서 작업하면 쉽게 눈이 피로해지고, 흐릿해지며, 심하면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을 할뿐더러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VDT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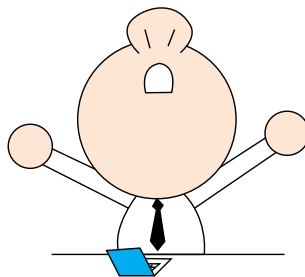
### 예방

컴퓨터 작업 시 키보드 높이와 팔꿈치 높이가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화면과 손끝과의 거리는 손을 쭉 뻗었을 때 50cm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았을 때 모니터 위치는 눈높이 내지는 10도 정도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작업할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VDT 증후군은 심한 경우 시력 손상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증상을 느낀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넷북 컴퓨터 증후군, 휴대폰 인터넷 게임 증후군

넷북 컴퓨터는 기존 노트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사이즈도 작아 언제 어디에서나 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넷북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넷북 컴퓨터는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지만, 그만큼 자판도, 화면도 작습니다. 그래서 두 어깨를 웅크리고 작업을 하기 쉬우며, 특히 전철 등지에서처럼 컴퓨터를 놓을 받침대가 적절치 않아 무릎이나 가방 위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 작은 자판에 집중하다 보면 안 그래도 웅크린 어깨에 목도 화면을 쫓아 점점 더 구부러지게 됩니다.

장시간 이러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면 집안에서 높이와 거리를 조절한 채 같은 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넷북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소 30분마다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고,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넷북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폰 인터넷이나 휴대폰 게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사이즈가 노트북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대부분 어깨를 오므리고 두 손으로 휴대폰을 잡은 채 사용하게 되며, 작은 화면을 더 잘 보려고 거리를 생각지 않고 눈 가까이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과 어깨, 목의 피로를 더 가중시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컴퓨터 기기와 관련된 질병을 알아 보았습니다.

필자 본인이 의사가 아닌 관계로 질병의 이름이나 증상 및 예방법 등은 전문가의 글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교민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스스로 검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인터넷 속도로 속 끊이시고 계시는 먼 지방 교민 분들이나,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 정도 보는 것으로 컴퓨터 생활의 전부를 할애하시는 컴퓨터 초보 분들, 단순히 뉴스보고, 메일 보고, 가끔 동영상 보시는 수준이라 나랑 관계없다 하실 분들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혹 내 몸이 좋지 않은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점검하셔서 부디 건강한 이국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를 위한 여섯가지 은유

저자 이어령 | 출판사 열림원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이야기하는 어머니와 영성!

어머니에 대한 고백과 그리움을 들려주는 이어령의 산문집 『어머니를 위한 여섯가지 은유』. 초대 문화부 장관이였으며, 냉철한 평론가이자 대표 지성이라 불렀던 이어령은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 고회를 넘긴 나이에 처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개인적인 가족사를 풀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에는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책, 나들이, 뒤희, 금계랍, 굴, 바다’라는 여섯 가지 은유로 그려낸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문답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어령만의 사색적이고 섬세한 필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산문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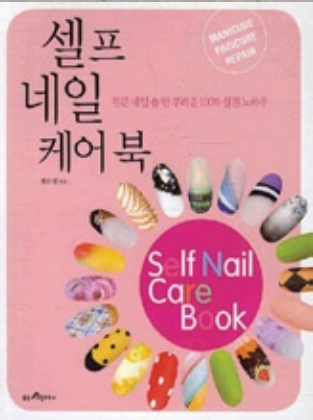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저자 노회찬, 앤디 비클바움, 공지영, 마쓰모토 하지메, 김규향 | 출판사 한겨레출판사

이제 1등만이 아닌 모두를 생각하자!

무한 경쟁 사회를 향한 평범한 다수의 발칙한 외침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유쾌하고 솔직한 지식과 교양의 한마당’을 모토로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특강」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이다. 이번에는 ‘1등과는 먼’ 삶을 살고 있는 현장과 인사들이 참여해 ‘1등 세상’에 맞서는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인기 있는 정치인이지만 선거에서는 늘 1등과 거리가 멀었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B급좌파’로 유명한 김규향, ‘비인간화된 1등들과 싸우는 것’이 소설가의 책무라 말하는 작가 공지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뱅이의 활동가’ 마쓰모토 하지메 등 여섯 명의 연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친다.



## 셀프 네일 케어북 - 전문 네일 슌안 부러운 100% 실전 노하우

저자 박은경 | 출판사 웅진리빙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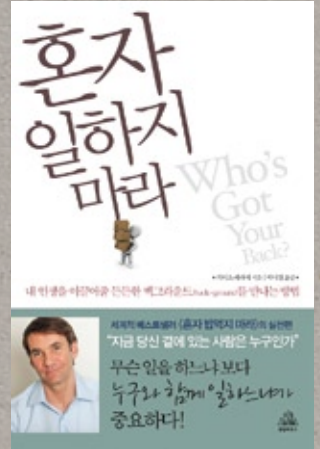
네일 뷰티 전문가가 알려주는 손쉬운 네일 케어와 네일 아트

아름다운 네일 케어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셀프 네일 케어 북』. 흔히 구할 수 있는 적당한 거칠기의 네일 파일과 물티슈, 몇 가지의 에나멜 정도면 누구나 간단하게 네일 케어를 할 수 있다. 건강한 손을 되찾는 방법부터 화려한 네일 아트 테크닉까지 난이도에 맞춰 차례로 배열하였으며, 과정 곳곳에 저자의 노하우를 담은 팁을 제공한다. 독자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도록 재료부터 완성까지 상세한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 혼자 일하지 마라

저자 키이스 페라치 | 역자 박미경 | 출판사 랜덤하우스

나의 일과 인생에 '사람의 힘'을 단단히 얽어 심는 비결 『혼자 일하지 마라』. 전작 <혼자 밥먹지 마라>에서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만나 보이지 않는 경계를 풀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됨으로써, 세상의 치혜와 성공의 기쁨을 교감하고 나누는 '관계의 비결'을 공개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개인과 조직 모두가 실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관계 지속'의 숨은 노하우를 알려준다. 실제 인물들과 일류기업들의 성공담으로 보다 확실한 윈윈(win-win)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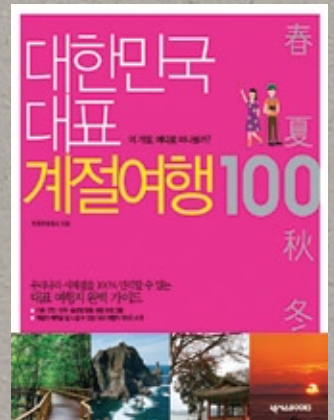


## 대한민국 대표 계절여행 100

저자 한국관광공사 | 출판사 넥서스BOOKS

대한민국의 사계절, 그 매력에 빠지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책 『대한민국 대표 계절 여행 100』.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각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같은 여행지라도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여행자들의 눈길과 발길을 붙잡는다. 이 책에서는 사계절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 여행지 100곳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작가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엄선한 여행지들로, 각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1년 12개월, 사계절에 걸쳐 여행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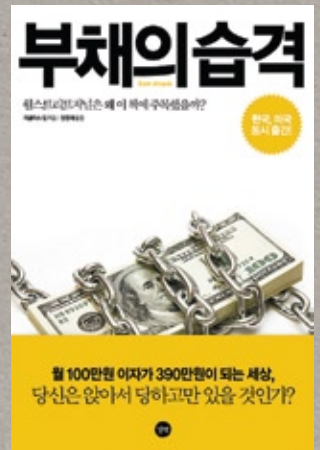


## 부채의 습격 - 월스트리트저널은 왜 이 책에 주목했을까

저자 더글라스 김 | 역자 민경재 | 출판사 길벗

한국 가계를 덮칠 부채의 습격에 대비하라!

한국경제를 위협할 부채의 습격을 다룬 책 『부채의 습격』. 외국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한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온 저자 더글라스 김이 세계적인면서도 한국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했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환율 혜택으로 상승세였지만 앞으로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강대국의 환율전쟁이 시작되어 수출총액은 줄어든다고, 전국민은 불안한 빚더미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 원리금균등상환이 시작되고, 늘어난 부채를 고스란히 가계가 짊어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출간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의 주목을 받았던 이 책은 한국의 가정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부채의 습격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초능력자

규남이 일하는 작고 외진 전당포, '유토피아'. 돈을 훔치러 들어온 초인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지만 초인의 통제를 벗어나 누군가가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주인공은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단 한 사람, 바로 규남이다.

당황한 초인은 사람을 죽이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겨진다. 그 날부터 초인은 자신의 조용한 삶을 한 순간에 달려버릴 결정적 단서를 손에 쥔 규남을, 규남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초인을 쫓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초인의 존재를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홀로 괴물 같은 상대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규남과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싸워야 하는 초인, 두 남자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다!



## Unstoppable

베테랑 기관사 프랭크(덴젤 워싱턴)와 신참 월(크리스 파인)은 평소와 다른 엄청난 하루를 시작한다. 오후가 되면 그들에게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같은 시각, 풀러 조차장에서는 폭발성 화물이 실린 '777호'기를 다른 선로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지지만, 정비공의 부주의로 이 기관차는 승무원 하나도 없이 엔진에 시동이 걸려 운행을 시작하고, 곧이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통제불능의 폭주를 시작한다. 순식간에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대한 폭탄 괴물로 변해버린 '777호'기. 곧 있으면 도심을 관통하고, 막대한 재난을 피할 수 없다.

그 순간, 같은 선로를 달리던 프랭크와 월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최후의 방법을 감행하는데...



## 부당거래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 계속된 검거 실패로 대통령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도중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가짜 범인인 '배우'를 만들어 사건을 종결 짓는 것!

이번 사건의 담당으로 지목된 광역수사대 에이스 최철기(황정민).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줄도, 백도 없던 그는 승진을 보장해주겠다는 상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건에 뛰어들게 된다. 그는 스폰서인 해동 장석구(유해진)를 이용해 '배우'를 세우고 대국민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다.

한편, 부동산 업계의 큰 손 태경 김회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 검사 주양(류승범)은 최철기가 입찰 비리건으로 김회장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에 분개해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한다. 때마침 자신에게 배정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조사하던 주양은 조사 과정에서 최철기와 장석구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최철기에게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는데..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YUNDAI  
TRUCK & BUS**



More than a game, it's a way of life.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

 **HYUNDAI**